

현대조선력사

고급 3

학우서방



甲第225號

정치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며 공화국에서 조선식사회주의의 강화와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1980-1989)

1. 《신랭전정책》과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	4
2. 조선식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	8
1) 1980년대전망목표	8
2) 《80년대속도》창조	11
3) 조선식사회주의의 강화	17
3.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25
1) 군사《정권》의 종식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25
2)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	33
4. 1980년대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39
1) 1980년대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39
2) 총련조직의 강화와 권리옹호투쟁	42
3)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전환	49
5.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54
1) 통일방안의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	54
2) 민족적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57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공화국에서 강성대국건설과 남조선에서 반미자주, 민주화를 위한 투쟁(1990-)

1. 《랭전》의 종식과 점예한 대결장으로 된 조선반도	66
2.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70
1) 사회주의가 나아갈 길	70
2) 나라의 자주권 고수	73
3) 《총포성없는 전쟁》	79
4)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90
3. 반미자주,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96
1) 《문민정권》반대투쟁	96
2) 민족자주, 민주화를 위한 투쟁	102
4. 1990년이후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07
1) 1990년대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	107
2) 주체적혁명외교운동의 선구자	109
3)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담보	116
4)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	122
5.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129
1)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	129
2) 민족의 존엄을 지켜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 마련 ..	134
3)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144
색인	150

제 6 편 정치군사적인장상태를 해소하며 공화국에서 조선식사회주의의 강 화와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 일을 위한 투쟁(1980-1989)

《신랭전정책》과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

1970년대말에 이르러 세계는 점차 《긴장완화》로부터 《긴장격화》
에로 넘어가게 되었다.

1977년 1월에 미국대통령이 된 카터는 《평화》와 《인권옹호》,
《군비철폐》의 미명하에 높아지는 민족해방투쟁과 반전평화운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월남전쟁이후 계속 무너져가던 미국의 패권적지
위를 되찾으려 하였으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은 1978년 3월 에짚트를 끌어당겨 《캠프 데이비드협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아랍나라들의 반이스라엘, 반미감정은 급속히
파급되고 1979년 2월에는 이란혁명이 승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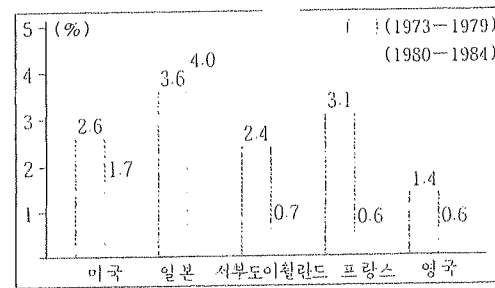


이란혁명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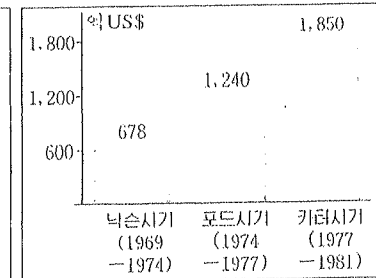
남아메리카에서도 그레네이
더, 니까라과의 친미정권이 련
이어 무너졌다.

1979년 10월에는 이란혁명을
계기로 제 2차 석유위기가 일어
남으로써 미국과 자본주의세계
는 큰 타격을 받고 경제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캠프 데이비드협정》: 1978년 3월 26일 미국의 중재밑에 아랍 여러 나라들을
제외하고 에짚트와 이스라엘 간에 맺은 《단독평화협정》이다.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국내총생산년평균성장률



늘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

이러한 속에서 자본주의 나라들간의 무역마찰과 시장쟁탈전은
더욱 격화되었다.

게다가 1970년대초부터 늘어난 미국의 貿易赤字와 財政赤字는
이 시기에 심각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 시
장의 개방을 강요하였으나 늘어나는 《쌍둥이적자》를 해결할수 없
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후 계속 유지해오던 세계최대
의 債權國의 자리를 잃고 債務國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전반적정세가 반제자주력량에 유리하게 전변되어갔으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이에 옹기 대응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정치경제적혼란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있었다.

소련은 미국과 타협하여 군축을 실현하는 한편 물질적자극을
위주로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높이는 시책을 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적요소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은 이에
추종하였다.

제국주의에 굴복하여 점차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한 동유럽사
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뿔스까의 자주관리로조 《련대》와 같은 조직
이 무어지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공개적으로 벌리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중국과 월남사이의 국경분쟁(1978.8), 월남의 캄보

자진공(1979. 1),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진출(1979. 12)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반사회주의선전의 구실을 주고 사회주의운동발전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의 세계적지배를 실현하려는 강경파들, 신보수주의세력들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들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서로의 연합을 강화해나갔다.

1981년 1월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된 레간은 대통령취임연설에서 자기의 목표는 《활력에 찬 성장하는 경제》와 《힘이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랭전정책》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태평양과 인디아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를 《신랭전정책》실현의 전략적요충지로 설정하고 미일《안보》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集團의安保体制》를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미국은 《레간-전두환회담》(1981. 2), 《레간-나카소네회담》(1983. 1)을 계기로 《운명공동체론》에 기초한 《미일〈한〉신시대》의 도를 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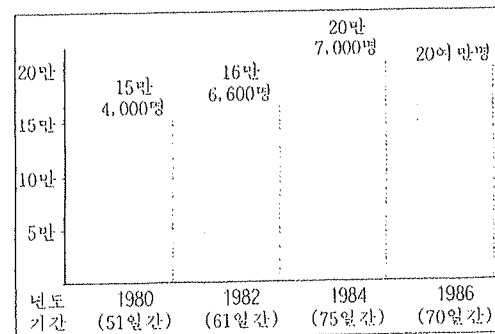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레간

《신랭전정책》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지한 《강한 미국의 제진》을 실현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한 《힘의 정책》. 그 특징은 군사안보제일주의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직접적대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핵무기를 기둥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의 구축과 전술핵무기의 密集配備, 세계적으로 반공군사동맹체제의 재구축, 《동시다발보복전략》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갔으며 일본열도를 《不沈空母》로 만들 구상까지 내놓았다.

미국은 미일《한》의 《3 각군사동맹》을 한층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동원수와 기간 강화하는 한편 조선반도를 힘의 대결의 시험장으로, 남조선을 미국전략의 제 1 선,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갔다.

광주사태이후 궁지에 몰리었던 전두환은 이에 힘을 얻어 1980년대를 《북과의 승패를 가름하는 시대》로 선포하고 《경제력의 강화》, 《국군의 증강과 《현대화》, 《핵전초기지화》를 다그쳐 공화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남조선의 외교적우세와 공화국의 국제적고립을 실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이루어보려고 하였다.

미국이 들고나온 《신랭전정책》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한층 격화되었으며 핵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커지게 되었다.

조선인민앞에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외세에 의한 핵전쟁의 참화를 막아내며 민족적화해와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할 절박한 요구가 나서게 되었다.



조선식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공화국인들의 투쟁

1) 1980년대전망목표

1980년대 공화국앞에는 1970년대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에서 날로 격화되는 군사적긴장상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또한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새로운 편방제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보고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주석님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주석님의 공인된 후계자로 선포하였다.

외의 당 제6차대회는 1980년대에 공화국인들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의 기치를 고수하고 조선식사회주의를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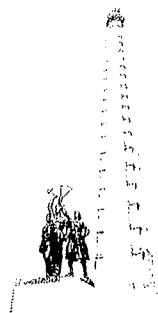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 제6차대회이후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대회결정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 전망목표달성을 위한 총진군운동에 떨쳐나섰다. 총진군운동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탄생 7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경축하려는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1982년 3월 31일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심으로써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도록



개선문



주체사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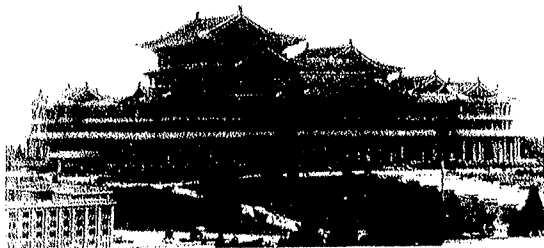
하시는 한편 주석님의 수도건설구

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평양의 면모가 일신되었으며 경제건설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허담을 비롯한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의 활동으로 경애하는 주석님의 국제적권위가 더욱 높아가는 속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인디아 1982. 4),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1982. 4) 등 주석님의 탄생 70돐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세계 5 대륙 118개의 나라에서 226개 대표단과 대표, 인사들이 평양을 찾아갔다.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새 전망목표실현을 위한 총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갔다.



인민대학습당



허담

2) 《80년대속도》창조

《80년대속도》창조운동

1980년대초 공화국앞에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을 빨리 끝내고 10대전망목표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를 실현하는 길은 양양된 인민들의 기세와 창조적열의를 더욱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속도를 한층 높이는 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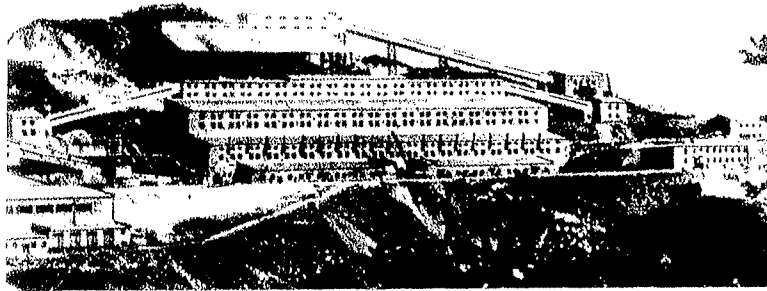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982년 6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공화국인민이 창조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속도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었다.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7월 9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구호밑에 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리었으며 강선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나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의 유색금속고지점령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결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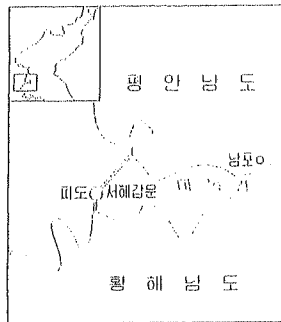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평장의 일부

에서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選鉱場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여기에서 《80년대속도》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하시었다.

선평장건설공사는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위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하시는 한편 1982년 8월말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 전원회의(합동전원회의)에 앞서 당, 행정경제기관 칠군들이 검덕과 단천지구를 참관하고 전체 인민들이 건설공사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었다.

검덕 제3선평장공사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된 대건설전투로 전환되어 힘있게 벌어졌으며 자체의 기술, 설비, 자재로 불과 한해동안에 훌륭히 완공되었다.



서해갑문건설략도

선평장 : 캐낸 광석에서 버력을 없애고 쓸모있는 광물을 뽑아내는 작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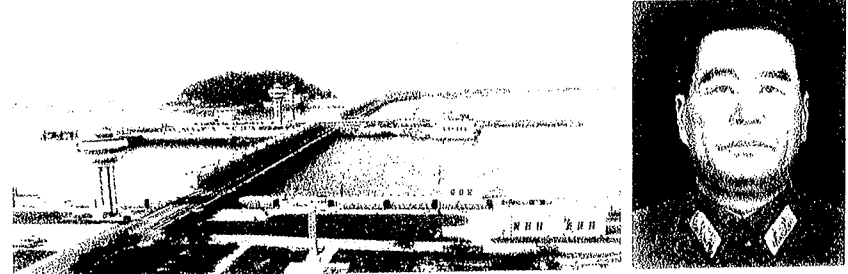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갑문건설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 공사를 인민군대에 맡기시었다.

그리고 몸소 갑문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었다.

송억만 등 군인건설자들은 프랑스의 란스조수력발전소 언제의 4배가 넘는 서해갑문을 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공하였다.



서해갑문

송억만

서해갑문건설과정에 군인건설자들속에서 100여명의 영웅이 나왔으며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의 보위는 물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날로 확대발전되는 가운데 1984년에 제2차 7개년계획이 완수되고 새 전망목표수행의 담보가 마련되어나갔다.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준비

제2차 7개년계획이 끝날무렵 공화국인민들앞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었다.

원료와 동력의 보장, 수송이 전반적경제발전속도에 따라지지 못하였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있었다.

게다가 미국이 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은 군사비부담을 덜수 없었고 대외무역의 길이 좁아져 필요한 외화를 얻을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에서는 ^{조절기}調節期(1985-1986)를 정하고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는것을 조절기에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정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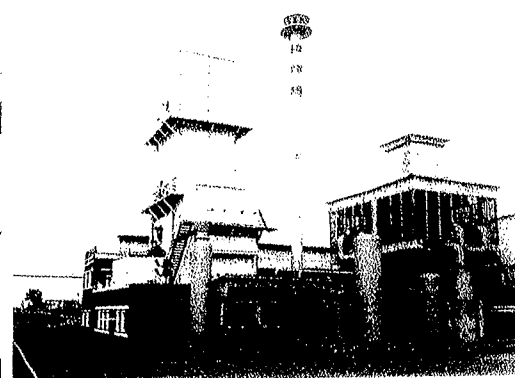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1985년 6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1만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와 같은 특대형기계들을

서해갑문건설의 경제적의의

- ① 서해지구의 관개용수, 농업용수, 음료수문제 해결
- ② 미립갑문 등 여러 갑문과련결, 수상운수, 대외무역발전의 전망 개척
- ③ 철길과 자동차길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더욱 완비
- ④ 대동강류역의 홍수피해를 없애고 더욱 아름답게 조성



1만t 프레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설치된
대형산소분리기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85년 8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최단기간안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릴데 대한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세워지고 1988년 3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88-1990)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은 1984년 과학기술인재, 秀才教育의 본보기학교로서 평

양제1중학교를 세운데 이어 1985년 9월부터는 각 도들에 제1중학교를 내왔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集積回路를 비롯한 電子材料, 극소형컴퓨터와 레이자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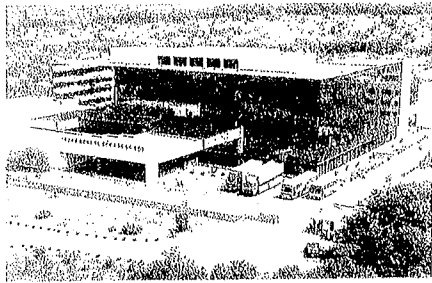


평양제1중학교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과학부문을 선진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 1만t 프레스: 1만t의 압력으로 금속이나 비금속재료를 눌러 일정한 형으로 찍어내는 기계이다.

· 대형산소분리기: 공기나 물을 분해하여 많은 량의 산소를 얻어내는 기계이다.



조선컴퓨터센터

구, 리용 등 尖端科学분야를 새롭게 개척해나갔으며 1990년 10월에는 조선컴퓨터센터가 건설되었다.

공화국은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基幹工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돌리였다.

장군님의 1984년 2월 16일연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실현하는 한편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고 경공업혁명방침과 봉사혁명방침에 따라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1984. 8)과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또한 살림집건설사업이 도시와 농촌에서 대규모적으로 벌어졌다.

공화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대외무역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1984년 9월에는 兌換法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제반 준비가 갖추어졌다.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 :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치를 높이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소비품을 인민들에게 더 잘 공급하고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는 투쟁이다.

3) 조선식사회주의의 강화

198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의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고있

던 일련의 변화들이 보다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소련에서는 1985년 3월 고르바초브가 집권하여 현대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주의가 밀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운운하며 《개혁》, 《개편》로선을 내놓았으며 사회주의원칙을 꺾버리고 자본주의적인 정치방식과 경제제도를 끌어들었다.

한편 고르바초브는 1985년 11월 쏘미수뇌자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전면적으로 타협하는 길로 나갔으며 저들의 로선을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과 사회주의운동가들은 《개혁》, 《개편》로선에 대하여 환상적으로 대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었다.



쏘미수뇌자회담과 관련한 신문자료

《개혁》, 《개편》로선을 어떻게 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과 직접 맞서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현대사회민주주의 : 사상에서 《자유화》, 정치에서 《다당제》, 소유에서 《다양화》를 주장하여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려는 사상조류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가
일층 심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1986
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
여》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기치
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
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현대사회민주
주의자들의 《개혁》, 《개편》로선에 마치나 새로운것이 있는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해
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체 강화 등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
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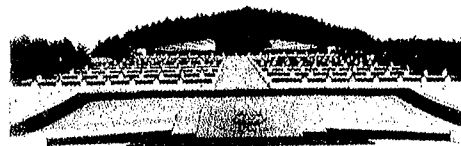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며 주
체의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밝힌
주요로작들(1980년대 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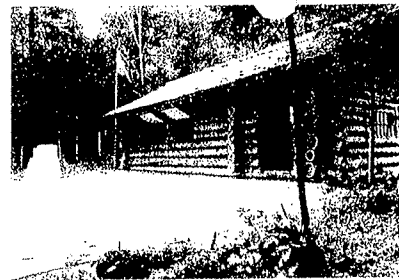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
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15)
-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
게 나아가자》(1987. 9. 25)
-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87. 10. 10)
-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자》(1989. 6. 9)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
양시키자》(1989. 12. 28)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
게 추진되였다.

이 시기 강석송을 비롯한
일군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대성
산혁명렬사릉, 백두산밀영 등



대성산혁명렬사릉



백두산밀영 수령부귀틀집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이에 기초하여 혁명
전통교양 등 주체사상교양이 활
발히 벌어졌다. 또한 《전당이 군
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연계를
한층 강화해나갔다.

한편 공화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
결을 계속 강화해나가면서 세계 80여개 나라들과 경제협조, 기술
교류관계를 맺고 南南協調를 강화하였으며 뽐력불가담나라들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대응하여 1985년 12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은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이 현대사회민주주의
에 휘말려 우여독절을 겪고있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가 선택
한 주체의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강석송

핵무기전파방지조약(核拡散防止条約)

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1968년 7월
조인, 1970년 3월 발효되였다.

조약은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핵폭발장치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핵무기보유국들은 핵군축
을 위해 노력하며 비핵국가들의 핵무기개발에
원조를 주지 않게 하자는것이다.

조약은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을 인정하고 비핵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을 감시,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조약참가국사이에 협정을 체
결하기로 규정하였다.

남남협조 :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말한다. 《남남》이란 발전도
상나라들의 대부분이 주로 지구의 남반구에 있다는데서 이르는 말이다.

경제적위력 강화 : 조절기의 경제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공화국인민들은 새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1986년 12월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1차회의에서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채택·발표되었다.

제 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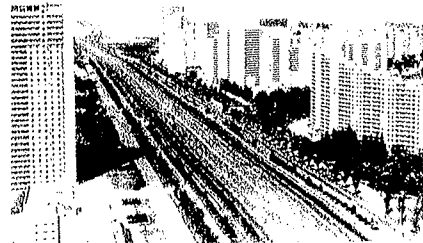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1987년 1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제 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제 3차 7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1988년 2월 20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200일전투(2. 21-9. 8)를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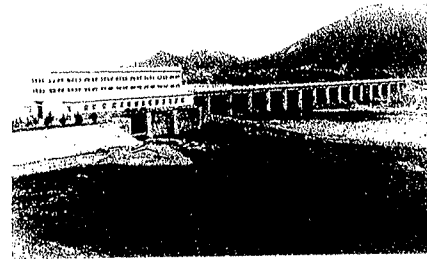
그리고 광복거리를 비롯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대상건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 2단계 확장공사, 태전발전소 등 중요 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

이 계획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공업의 년평균 성장률 10%)로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한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의식주문제 해결,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기술혁신운동의 힘있는 전개, 대외경제사업의 확대 등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광복거리



태전발전소

200일전투의 주공방향으로 규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후 각지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군중대회와 쉼기모임들이 열리고 혁신의 불길은 삼시에 온 나라로 타번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88년 5월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전투기간 전국도처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전력생산과 석탄생산이 공화국창건이후 최고수준에 올라선것을 비롯하여 전투기간 공업생산은 198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2%로 장성하였다.

1988년 9월에 소집된 전국영웅대회에서는 200일전투에서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또다시 200일전투에 떨쳐나섰으며 5월 1일경 기장을 비롯한 500여개의 대상건



200일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로동자들

두차례의 200일전투기간에 완공한 중요대상건설

- 1988. 8 배천 1호, 2호발전소
- 1988. 8 북부청년철길공사(혜산-만포)
- 1988. 9 룡라다리외 금룡동굴
- 1989. 5 광복거리
- 1989. 5 청춘거리
- 1989. 5 5월 1일경기장
- 1989. 9 서부지구 2,000리 물길공사



5월 1일경기장

설을 완공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내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두차례의 200일전투 성과로 하여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의기치를 고수해나갈수 있는 경제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나라의 방위력 강화

1980년대 새로운 전망목표를 달성하려면 군사비부담을 줄이고 경제건설에 투자를 보다 많이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접경에 이르게 된 정세는 그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군사비지출을 늘이면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더욱이 조국해방전쟁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군대에서도 세대가 교체된 현실은 그에 맞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것을 미룰수 없는 요구로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1982년 4월 조선인민군창건 5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새롭게 밝히시었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여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 전군의 주체사상화방침 관철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대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의 전투지휘능력을 높이고 지휘의 현대화, 자동화를 위한 강습과 군사과학토론회, 전술연구회 등 각종 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되었으며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실전의 분위기가속에서 전투훈련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3년 1월부터 중대지도소조활동이 새롭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중대장대회, 중대정치지도원대회 등 여러 대회들이 련이어 소집되었다.

또한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 원칙에서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 전자전 준비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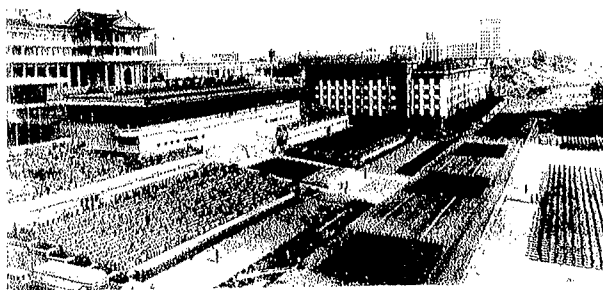
중대지도소조활동 : 3대혁명소조운동을 군대에 적용한것으로서 인민군대에서 지도소조를 무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활동이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온 나라를 소왕청처럼 철벽의 요새로 만들자는 것이 주석님의 구상이고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시었다.

이 시기 로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새로운 진지축성법에 따라 모든 군사진지들을 현대전에 대처하여 튼튼히 꾸리기 위한 방어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외세의 위협과 침략책동에도 굴함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킬수 있는 위력한 억제력, 강력한 무장력이 튼튼히 꾸러지게 되었다.

공화국인민들은 군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1991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1993년 4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진행한 열병식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 군사《정권》의 종식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새로운 군사《정권》의 수립

광주인민봉기를 류혈적으로 탄압한 전투환은 1980년 5월 31일 《国家保衛非常对策委員會》(《국보위》)를 내오고 새로운 군사과쑤체제의 수립을 다그쳤다.

《국보위》는 저들의 집권에 장애로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7월에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날조하고 문익환을 비롯한 100여명의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그 공범자로 몰아 체포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치기구. 형식상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것을 지휘, 감독, 통제하는 집권기관이었다.

그리고 사회를 《淨化》한다는 미명하에 8,500여명의 공무원, 언론인 등을 강제해직시키고 172개의 정기간행물과 617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



《국보위》에 관한 신문자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신문자료

하고 6만여명을 《심정교육대》로 끌어갔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최규하를 《대통령》자리에서 밀어낸 후 10월에 《제 5 공화국헌법》을 작성하고 새 《정권》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월에는 《중앙정보부》의 간판을 《안전기획부》로 바꾼데 이어 1981년 1월에 《민주정의당》(민정당)을 내오고 정당정치 형태를 갖추었다.

2월 새 《헌법》에 따라 진행된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제 5 공화국》이 출현하였다.

《숙군정변》과 광주인민봉기의 탄압, 일체 반대세력에 대한 진압의 결과로 세워진 전두환《정권》은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국제적비난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전략적위치를 중요시한 미국대통령 레간은 집권하자 맨 선참으로 전두환을 미국에 불러들여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수상 나카소네도 첫 《수뇌회담》을 전두환과 진행하여 막대한 경제적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전두환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국군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군사에산의 76%를 각종 군사장비를 갖추는데 돌리었다.

전두환《정권》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후과와 제 2차 석유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대외채무와 부실기업문제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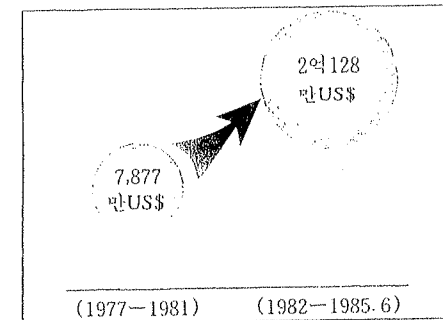


《민정당》조직과 《제 5 공화국》출현에 관한 신문자료

1. 《심정교육대》: 폭력배, 공갈배를 《순화》한다는 목적 밑에 죄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훈련과 고역, 고문을 강요한 군대안에 만들어진 특별부대이다.
2. 《민주정의당》: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내은 여당으로서 전두환을 제12대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자본의 자유화》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것으로서 이 정책의 결과 남조선경제에 대한 외자도입의 방향이 차관으로부터 직접투자의 형태로 전환되고 경제전반에 외국자본이 더 쉽게 침투할수 있는 길이 열리었다.



외국자본의 년평균직접투자액의 증대

습하기 위하여 《경제안정화정책》으로 경제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1986)기간에 《자본의 자유화》, 《수입의 자유화》가 실시되고 不實企業의 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남조선경제는 1986년부터 도래한 三低好況으로 일시 경기가 회복되는듯 하였다.

이 과정에 남조선경제의 대외예속성은 한층 심화되었다.

또한 몇개의 독점자본이 큰 이익을 보고 《안정화》되는 속에서 정경유착이 촉진되고 《리철희, 장령자사건》과 같은 전례없는 규모의 부정사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군사《정권》과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과의 정치경제적모순은 날로 심화되었다.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발전

광주인민봉기이후 민주화운동세력들속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추진시켜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거듭되었다.

3저호황: 저달러, 저原油價格, 低金利의 3저현상에 의해 1986~1988년에 걸쳐 남조선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던 상태를 말한다.



불타는 부산《미국문화원》

이러한 때인 1982년 3월에 일어난 부산《米国文化院》放火事件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지고 반미운동의 봉화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대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속에 적극 들어가 활동하는 과정에(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나갔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83년 2월부터 전두환이 내놓은 《国民和合措置》의 틈을 타서 발전하여갔다.

1983년말 《블랙리스트철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음해 6월 대구택시운전수들의 총파업을 계기로 전국적범위로 확대되었다.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

- 1982. 3 부산《미국문화원》방화
- 1982. 4 강원대학교 미국《성조기》 소각
- 1983. 9 대구《미국문화원》폭파
- 1985. 5 서울《미국문화원》점거
- 1985. 12 광주《미국문화원》점거

《국민화합조치》

전두환《정권》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과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진행한 《유화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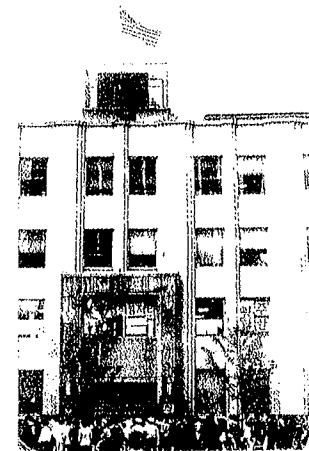
이 《조치》에 의하여 정치활동규제자들이 감형, 복권,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오고 대학에서 제적된 학생, 교원들이 복교, 복직되었으며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 : 부산 고신대학 학생들이 광주학살과 군부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여 부산《미국문화원》을 방화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미국문화원》점거사건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학생 73명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통성투쟁을 벌인 사건이다.

학생들은 《광주사태의 책임을 지고 미국은 공개사과하라》는 구호를 들고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통성투쟁을 벌렸다.



서울《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통성투쟁하는 학생들

투쟁속에서 각성된 노동자들은 통일적인 《민주로조》결성에 박차를 가하여 1985년 8월 《서울로동자운동연합》(서로련)을 조직하였다.

학생들은 1983년 12월 《민주학원자율화조치》가 발표되자 학교마다 《학생회》를 만들고 민주화운동을 벌리었다.

그들은 1985년 4월 전국적인 연대조직인 《전국학생총연합회》를 결성하고 그의 지도밑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의 3民理念을 내걸고 운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광주학살진상규명운동을 활발히 벌리었으며 1985년 5월에는 광주인민봉기 5돐을 맞으며 서울《미국문화원》점거사건을 일으켰다.

재야운동세력은 여러 지역에서 부문별운동단체들을 결성하였다.

각 지역별, 부문별운동이 활발해지자 전국적규모의 연대가 요구되어 19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

주요재야운동단체의 결성

- 1983. 9 《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983. 12 《해적교수자협의회》
- 1984. 3 《한국로동자복지협의회》
- 1984. 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1984. 4 《해적언론인협의회》
- 1985. 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1985. 1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련))이 결성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80년대에 들어와 뚜렷한 투쟁방향을 세워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월인민항쟁 :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직화과정에 더욱 정치적으로 각성되었으며 전두환《정권》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이러한 때인 1985년 1월에 《신한민주당》(신민당)이 결성되어 《大統領直選制》를 강령으로 내걸고 《총선거》에 참가하였다.

전두환《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발은 재야세력을 하나로 집결시켜 연대투쟁을 벌리게 하였다.

결과 1985년 2월 12일에 진행된 제1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겨우 32.2%의 득표율밖에 차지하지 못한 반면에 《신민당》은 29.4%의 득표율을 얻어 제1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6년 2월 《신민당》이 《1천만명개헌서명운동》을 발기한것을 계기로 《改憲》투쟁이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재야세력들은 대규모시위를 벌리였으며 《반미》, 《군사독재타도》, 《민주정부수립》의 구호를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신민당》은 5월 30일 《3비선언》을 발표하여 재야운동권과 거리를 두고 《개헌》투쟁을 《국회》안에서만 벌리기로 제한하였다.



《개헌》투쟁을 탄압한데 대한 신문자료

! 《신한민주당》: 《국민화합조치》로 풀려난 구《신민당》인사들과 각계각층 민주 인사들이 내은 야당으로서 리민우를 총재로 하여 대통령직선제, 일체 독재와 독점의 폐지 등을 정치강령으로 내세웠다.

《3비》: 《非反米, 非容共, 非暴力》을 말한다.



박종철학생주모식을 진행하는 학생들

《박종철고문치사사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에서 수배중이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운의 행처를 대라고 심문을 받다가 고문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재야인사들, 《신민당》의 연대는 완전히 깨여지게 되었다.

전두환《정권》은 이를 계기로 《유화국면》의 막을 내리고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1986. 6) 등 온갖 만행을 다해가며 《개헌》투쟁을 짓눌러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7년 1월 《박종철拷問致死事件》이 터지면서 그의 죽음에 항의하는 박종철추모대회, 고문추방민주화대행진이 연이어 벌어지고 《직선제개헌》, 《전두환정권타도》를 요구하는 투쟁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이 《4. 13護憲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과 재야연합은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 10국민대회》, 《6. 26민주헌법쟁취국민평화대행진》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6. 10국민대회》는 명동성당로성투쟁으로 이어지고 연세대학교

《4. 13호헌조치》(1987.4.13)

전두환이 《특별담화》를 통하여 《호헌》립장을 밝힌것으로서 그 내용은 현행헌법에 따라 1988년 2월에 《정권》을 이양하며 《개헌》론의는 《88올림픽》이후로 미루겠다는것이다.



명동성당로성투쟁

리한렬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죽은 사건을 계기로 18일에는 남조선의 14개 도시에서 24만여명이 참가한 《죄루탄주방대회》로 전환되었다.



죄루탄에 맞아 쓰러진 리한렬과 시위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대회에 참가한 군중들은 달려드는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경찰서들을 파괴, 방화하였으며 《호헌철폐》의 구호를 《독재타도》, 《민주쟁취》, 《군부독재를 지원하는 미군철수》로 바꾸고 시위투쟁을 과감히 벌리었다.

인민들은 《군대개입설》이 나도는 속에서도 《6. 26평화대행진》을 기어이 단행하였으며 여기에는 무려 18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당황한 미국과 군사《정권》은 로태우를 내세워 《6. 29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민주세력이 내놓은 《직선제개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민주화조치》를 공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연 500여만명의 참가밑에 20여일간 동시에 벌어진 6월인민항쟁으로 《直選制改憲》의 요구가 실현되었다.

6월인민항쟁은 7월부터 전국적인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6. 29특별선언》발표이후 탄압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속에서



《6. 29특별선언》을 실은 신문자료

노동자들은 생존권확보와 조직결성을 위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삼시에 이 지역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자주적인 로조건설, 재벌타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

구하는 각종 로동쟁 4가 7~9월 사이에 무려 5,000여건이나 벌어졌다.

6월인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1970~1980년대에 줄기차게 벌려온 남조선인민들의 반군사독재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6월인민항쟁을 통하여 인민들은 16년만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였고 투쟁대오는 미국과 군사《정권》이 더는 무력개입을 할수 없을만큼 확대강화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갔다.

2)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

군사《정권》의 지속 남조선인민들은 직선제대통령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기들의 손으로 야당후보를 당선시켜 《민주정부》를 세우고 군사《정권》을 끝장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세력은 새로운 《정권》수립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그 과정에 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으며 재야세력은 《김영삼지지파》, 《김대중지지파》, 《민중후보지지파》로 나뉘어져 《대통령선거》에 단합된 세력으로 대응하여 나서지 못하였다.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은 1987년 5월 《신민당》에서 나온 세력들이 만든 보수야당으로서 제13대 《대통령》후보로 김영삼을 내세웠다.

그를 반대한 《김대중지지파》들이 《신민당》에서 나와 11월에 《평화민주당》을 내고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민정당대통령후보》인 로태우는 자기의 경력을 가리워보려고 《보통사람》이라는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였으나 《선거전》에서 크게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87년 11월에 조작한 《남조선러각기실종사건》은 로태우의 《선거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하여 12월에 진행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로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제6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군사《정권》이 지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로태우 자신이 력사상 최하의 득표로 《당선》된 《30%대 대통령》이었던데다가 1988년 4월에 진행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로태우《정권》의 정치적지반은 심히 약하였다.

로태우《정권》은 이러한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주세력에 대한 일련의 《宥和政策》을 실시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신문자료

《남조선러각기실종사건》

1987년 11월 28일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남조선러각기가 타이-관마국경부근상공에서 실종된 사건. 남조선당국은 이 사건을 《북조선 공작원 김현희》가 일으켰다고 날조하여 대대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 그 너자를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전날에 남조선에 이송함으로써 로태우《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김종필
8.1%

김대중
27.3%

로태우
36.6%

김영삼
28%

제13대 《대통령선거》득표율

인민들의 요구에 못이겨 《5 공청산》을 시작한 로태우《정권》은 1988년 11월 《国会聽聞會》를 열고 TV생중계를 통하여 《五共非理》, 《광주문제》 등의 실태를 폭로하는것처럼 하였다. 또한 재야단체와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고조되자 《7.7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듯이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는 정세를 리용하여 1988년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마자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교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남조선《정권》의 《국제적위신》을 높이는 길에서 저들의 《정통성》을 얻어보려고 하였다.

로태우《정권》은 집권한 초기에 인민들의 경제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점차 전두환시기의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금융, 주식분야에까지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1980년대 중엽부터 강화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눌리어 농축산물수입이 대폭 늘어나 국내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남조선경제의 구조적모순은 더욱 격화되어갔다.

자주, 민주, 통일 6월인민항쟁이 후 급속히 발전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은 로태우《정권》의 출현직후부터 더욱 맹렬하게 벌어졌다.

민주세력들이 벌린 광주사건真相糾明투쟁과 《5공비리》정산투쟁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련일 가두집회와 시위투쟁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5공비리》정산투쟁에 관한 신문자료

《7.7선언》: 1988년 7월 7일 로태우가 통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털어 부르는 말이다.

이 투쟁은 로태우《정권》으로 하여금 광주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재평가하고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령탑 및 기념관건설을 약속하게 하였으며 전투환을 隱遁生活^{은둔생활}에 몰아넣었다.



현대중공업로동자들의 파업투쟁

한편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운동도 급속히 전진하였다. 민주로조들이 곳곳에 조직되고 여기에 생산부문 로동자는 물론 금융, 언론, 병원, 대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190여만명의 광범한 로동자들이 망라되었다. 1988년 6월 현대중공업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계기로 높아진 연대투쟁의 요구에 따라 1990년 1월에 《전국로동조합협의회》(전로협)가 결성되었다.

농민들도 1989년 2월 여의도농민시위투쟁을 계기로 투쟁을 한층 고조시키고 자기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1990. 4)을 결성하였다.

청년학생들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결성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은 1988년부터 통일운동으로 발전하

각계각층의 전국연합조직의 결성

- 1987. 7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1987. 8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 1988. 6 《전국로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로운협》)
- 1988. 12 《한국민족예술인총연맹》(《민예총》)
- 1989. 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 1989. 5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 1989.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1990. 1 《전국로동조합협의회》(《전로협》)
- 1990. 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올림픽공동개최를 위한 쉼기대회

여갔다. 1988년 《서울올림픽》북남체육회담이 결렬된 후 청년학생들의 올림픽공동개최운동이 벌어졌다. 3월 서울대학교총학생회가 김일성종합대학에 학생교류와 체육교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의 발표로 불붙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5월 조성만이 《올림픽은 반드시 공동개최되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할복투신하는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전대협》은 6. 10 및 8. 15남북학생회담과 국로종단대행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청년학생들을 더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이북바로알기운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 사람들속에 남아있던 《반공》, 《반북》사고의식이 전환되어나갔다. 청년학생들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987년 8월 19일 남조선의 각 대학총학생회장들의 협의단체로서 조직되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최고리념으로 하고 《100만학도의 대동단결과 민주적학생자치활동의 실현》을 자기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였다.

조직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3년 3월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를 결성하고 조직을 대중화하였다.



북으로 향한 도로에 누워서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

중심으로 벌어진 통일운동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됨으로써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3월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경에하는 주식님의 새로운 협상방안을 접수한 문익환목사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6월 30일에는 림수경이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로 참가하여 북남청년학생들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로운 활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통일사절들의 련이은 공화국방문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한층 고무추동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질첩한 로태우《정권》은 《유화정책》을 집어던지고 《公安政治》를 실시하였다.

1989년 4월 로태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있는 좌경폭력세력》을 제거하고 《민생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실밑에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내오고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재야인사들에 대한 전면탄압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동의대사건》, 《리철규학생변사체사건》 등이 일어나 자주, 민주, 통일세력과 군사《정권》간의 충돌은 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1989년 1월 8개의 각 부문별단체와 전국의 12개 지역단체, 200여개의 개별단체를 망라하여 무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체.

《전민련》은 분렬을 거듭해온 민족민주운동단체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조직으로서 로동자, 농민의 생존권투쟁, 범민족대회의 추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되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전대협》대표

1980년대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 1980년대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정부는 미국의 《신랭전정책》에 편승하여 《안보협력》, 《경제협력》의 구호밑에 경제대국으로부터 군사대국화으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미 1978년에 확정 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1984년에 조선반도전쟁계획인 《미일공동작전계획》을 완성하고 1985년에 《中期防衛力整備計画》을 세웠으며 1987년에는 국민총생 산액에서 군사비지출의 1%미만선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

군사대국화의 흐름을 타고 일본수상의 靖国神社公式参拝(1985.8)와 교과서개정 등 복고주의적인 국수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 미일《한》의 군사동맹도 새로운 《군사일체화》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기부터 일본국내에서는 토지와 주식에 대한



《가이드라인합의》에 관한 신문자료



야스쿠니신자참배에 관한 신문자료

투기 投機가 확대되어 《거품경기》(바블경기)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 일본사회전반에 극도의 황금만능사상이 널리 퍼져갔다.

또한 이 시기 금권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리크루트사건》과 같은 金權腐敗事件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배경속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맡아나선 일본은 반공화국적 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였으며 남조선과 결탁하여 여러 《사건》을 계기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정책을 한층 강화해나갔다.

일본당국은 《國際人權規約》의 비준(1979.9)과 《難民条約》의 비준(1981.10)을 계기로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일부 관련법들을 개정하였으나 그 《치안유지》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新国籍法》의 개정(1985.1)은 재일동포들의 《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일본당국의 탄압과 《동화》정책이 강화되는 속에서 1980년대에



《리크루트사건》에 관한 신문자료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사건(1980년대)	
1983. 10	《량군폭발사건》과 관련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
1984. 7	《風俗営業法》개정을 통한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침해사건
1986. 9	《김포공항폭발사건》과 관련한 반총련소동
1987. 12	《남조선러객기실종사건》과 관련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
1988. 9	《外國為替管理法》위반을 구실로 총련 상공련사투소와 니이가타 출장소에 대한 강제수색사건
1989. 8	《바정교의혹》을 통한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침해사건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1948.12)에 기초하여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인권 A규약(사회권), 국제인권 B규약(자유권)이 있다. 《난민조약》은 1951년에 작성발효되었다. 이 《조약》에는 内外人平等의 원칙, 박해의 우려가 있는 본국에 송환하지 않는 원칙, 무차별원칙 등에 따라 여러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신국적법》개정의 기본내용

① 父系血統主義로부터 父母平等血統主義에로의 변경, ② 신고제도의 도입, ③ 戸籍法の 개정을 통하여 외국성으로 호적등록을 할수 있도록(日本の氏名の 강제규정폐기)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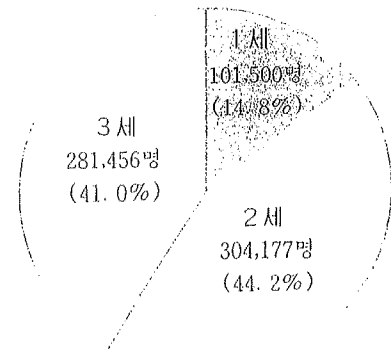
들어와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재일동포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 나게 되었다.

이 시기 재일동포구성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된 2세, 3세 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이 희박해졌다.

일부 동포들속에서는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조직을 멀리하는 《재일론》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지문날인(指紋押捺)拒否, 취직차별반대, 일본학교에 다니는 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 등 다양한 권리쟁취운동이 벌어졌으며 동포들의 요구도 다양화되어갔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변화된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애국애족운동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의 세대별구성(1984년)

*《재일론》: 《재일》이라는 조건, 《국제화시대》를 운운하면서 재일동포들을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조국과 조직을 멀리하면서 일본사회와의 관계속에서 共生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2) 총련조직의 강화와 권리옹호투쟁

총련을 생기발랄한 애국조직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총련앞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을 생기발랄한 애국조직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총련은 제12차 전체대회(1980. 11)와 제13차 전체대회(1983. 6)에서 이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70돐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300일간애국혁신운동》(1981. 6-1982. 4)과 총련결성 30돐을 지향한 애국혁신운동(1984. 8-1985. 5)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특히 《랑군폭발사건》(1983. 10)을 구실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 한층 강화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분회와 동포들속에서 사업하며 생활하자!》는 구호밑에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회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1981년과 1982년에 총련은 결성이래 가장 큰 규모로 동포전호방문운동을 벌린데 이어 1984년과 1985년에도 전호방문운동을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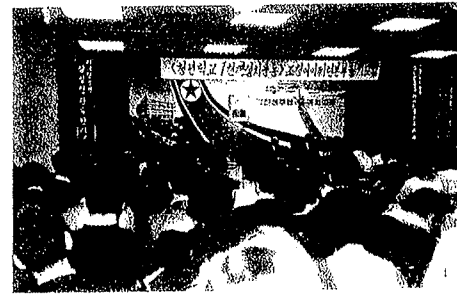
조청에서도 《청년학교 1전개 설치운동》, 《2만명 조선청년방문담



애국혁신운동에 관한 신문자료



동포들속에서 사업하는 총련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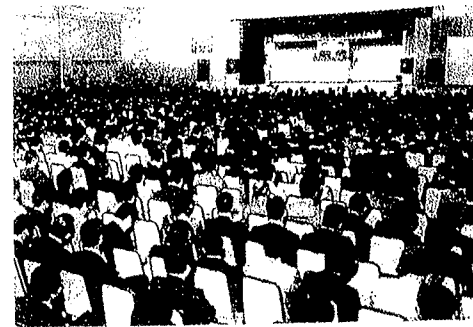
《청년학교 1전개 설치운동》에 앞장서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궤기모임

회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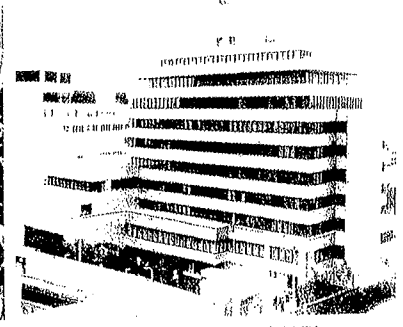
특히 총련은 상공인들을 기본군중으로 규정하고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그들이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1985년 4월 총련결성 30돐을 맞으며 진행된 재일조선 젊은 상공인중앙대회는 젊은 상공인들로 하여금 총련사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1세대동포들이 걸어온 애국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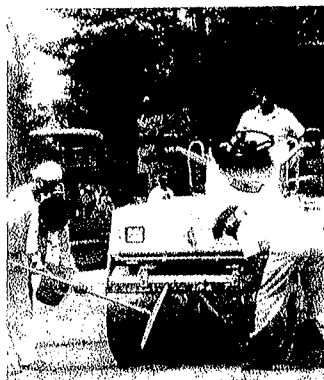
총련조직에 굳게 뭉친 동포들의 힘은 일본의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지상 10층, 지하 2층의 현대적인 총련중앙회관을 준공(1986. 9. 25)한데 커 크게 과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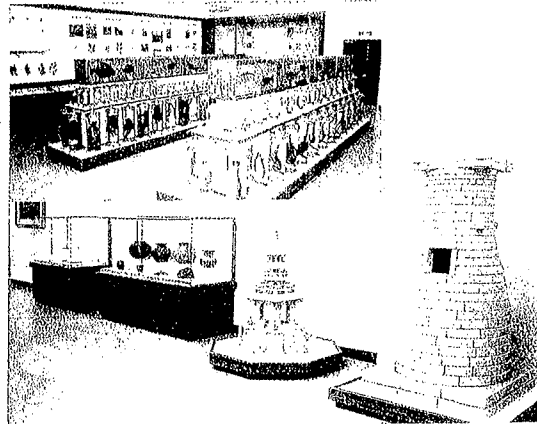
젊은 상공인들의 중앙대회장



새로 준공된 조련회관



학교를 잘 도와주는 동포들



조선대학교 역사박물관과 자연박물관

총련은 교육사업을 전 기관적, 전 동포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변화된 환경과 민족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1983년에 과정안과 교과서를 개편하는 한편 학생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여졌다.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결과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져 학생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현재

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소유한 애국인재로 더 잘 키울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교사들이 새로 개축되고 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총련은 생기발랄한 애국조직으로 강화되었으며 애국애족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

- 조선대학교에 2,500여점의 자료들로 조선력사박물관, 자연박물관 신설
- 재일청소년학생들에게 《김일성 청년영예심》, 《김일성소년영예심》 수여
- 재일청소년학생들의 조국방문
- 해마다 진행되는 조국의 실맞이공연 참가

법적지위와 생활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총련은 권리문제해결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과 동포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기초하여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동포들의 보다 안정된 法的地位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시기 일본정부가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을 비준한 것과 관련하여 총련은 일본당국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재일동포들의 역사적특수성을 고려하여 在留權과 社會保障權利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대중운동을 강력히 벌리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978년에 이어 1980년 11월부터 다음해의 3월까지 안정된 재류권과 사회보장의 적용을 요구하여 후생성, 법무성 등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당국을 상대로 요청운동을 벌리었다.

일본당국은 국제적으로 내외인 평등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과 일본인민들의 지지기운이 양양되자 1981년 6월 12일 《出入国管理 및 難民認定法》(1982년 1월 1일 시행)에서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를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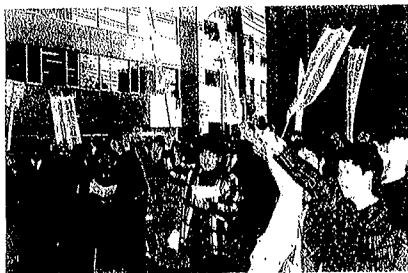
하는 《特例永住》制度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례영주》제도(특례영주권)

재일동포들의 在留資格은 ① 법률 126호해당자(조선국적소유자로서 협정영주를 거부한 사람) ② 특정재류자(법률 126호해당자의 자녀) ③ 특별재류자(법률 126호해당자의 손자) ④ 일반영주자 ⑤ 협정영주자(《한국》국적소유자)로 구분되어있었다. 일본당국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특례》조치로서 일제식민지통치의 결과 조국해방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동포들과 그 자손들에게 《특례영주자격》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強制退去》조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출입국법안》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은 투쟁을 통하여 사회보장권리도 획득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난민조약》의 원칙에 위반되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1980년 4월에 《公営住宅入居権》을 인정하였으며 1982년 1월에는 일본인에 한정되어있던 《児童手当法》, 《国民年金法》 등의 사회보장관계법에서 《国籍要件》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보다 안정된 재류권과 사회보장권리의 획득은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시키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운동을 한층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기본인권과 민족적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운동도 보다 힘있게 전개하였다.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① 障害年金가입문제

《국민연금법》에서는 20살의 생일에 장애인정을 하기로 되어있다. 이로부터 1982년 1월 시점에서 20살을 넘고있던 재일조선인장애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② 老齡年金문제

로령연금문제는 20살이후 60살까지의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해당 안되는 35살이상의 동포들은 로령연금에서 제외되었다.

총련은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민족권리옹호사업의 중심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재일조선인중앙대회(1984. 6)와 《300만명서명운동》을 벌려 내외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300만명서명운동》

198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이 운동은 ① 지문등록제의 폐지, ② 《등록증》의 常時携帯의 무제도의 폐지, ③ 刑罰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진행하였다.

운동에는 《민단》동포, 일본인민, 재일의국인들도 참가하여 368만 6,207명이 서명하였으며 서명부는 5월에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서명운동을 벌리는 동포들

총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제12차총회(1984. 10)에 참가하여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시정을 요구하는 총회결의를 받아내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청원서를 제출(1984. 10)하였다.

또한 일본인구의 73%를 포괄하는 1,071개의 지방자치체의회의 결의를 받아내었다.

한편 재일동포들은 일본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지문날인을 거부하거나 법적소송투쟁도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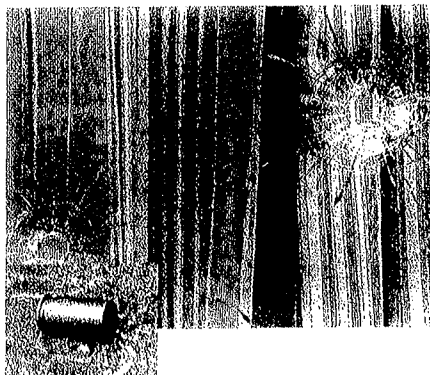
내외여론의 항거에 부딪친 일본당국은 하는수 없이 1987년 3월 《외국인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카드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문날인거부운동

1980년 8월 한 동포가 지문날인은 인권무시행위라고 하면서 新宿区役所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한것을 계기로 일어난 운동이다. 일본당국은 지문날인거부자들을 체포하여 운동의 확대를 막으려 하였으나 운동은 일본시민단체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의 지지를 받아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졌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제반 민족권리를 획득하는 사업과 함께 《량군폭발사건》과 전두환의 일본행각(1984. 9)을 계기로 우심해진 반총련, 인권침해행위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였다.

이 시기 일본공안당국의 간첩강요책동과 함께 총련중앙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권총란사사건과 그를 규탄하는 중앙대회
본부에 대한 권총란사사건(1983. 11), 우리 학교 녀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1983. 11~12)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이 련이어 일어났
다.

재일동포들은 항의투쟁에 일떠섰으며 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
성명과 요청서를 발표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책동과 총
련에 대한 파괴책동을 즉시 그만둘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일본당국의 《풍속영업법》의 濫用, 《強制査察》
등 동포기업에 대한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였으며
조국에로의 왕래와 제 3국에로의 여행의 권리를 굳건히 옹호하고
확대해 나갔다.

단결된 힘으로 풍속법 개악책동을 물리치고 기업권을 굳건히 지키자

기업권을 침해하는 《풍속영업법개정법》 개악 반대
재일조선상공인연합회 모임이 있었다



조선인민은 1983년 11월 12일 일본당국이 우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책동을 규탄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였으며, 조국에로의 왕래와 제 3국에로의 여행의 권리를 굳건히 옹호하고 확대해 나갔다.

《풍속영업법》의 감용책동과
관련한 신문자료

줄기차게 벌어진 권리옹호
투쟁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은
총련조직의 귀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조
직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민족의 존엄과 민주주의적민
족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나
갔다.

3) 애국대족운동의 새로운 전환

변화된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총련앞에는
변화된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자체사업
을 새롭게 전환시켜나가야 할 절실한 요구

가 나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986년
9월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총련이 나아갈
길을 밝히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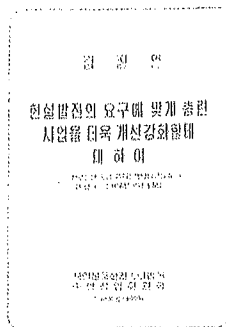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주체
사상은 총련의 창건리념이며 지도적지침이
라는것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총련이 앞으로
도 변함없이 주체사상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이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
을 새롭게 전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총련은 1986년 3월에 제14차 전체대회를 열어 총련사업의 새로
운 전환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총련 제14차 전체대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주신 말씀



제14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재일조선인운 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애 국애족의 데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되었다.

총련은 대회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업전반을 새 세대 동포상 공인들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시키도록 하였으며 총련중앙사업

위원회 제14기 제16차회의(1987. 5)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1987년 8월말까지 총련중앙사업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본부, 지부, 분회일군으로 애국심이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근 300명의 상공인들과 젊은 상공인들을 등용하였다.

그리고 동포들의 권리와 생활, 기업경영을 성의껏 도와주는 《동포생활상담소》를 본부들에 새로 내고 지부와 분회단위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총련은 대회이후 전반사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조직을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힘있는 조직으로 꾸려나갔다.

새 세대 동포들을 중
심으로 한 운동으로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총련과 재
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은 날로 어렵
고 복잡하게 변화되어갔다.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걷기 시작한것을 기회로 일본반동들은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총련 제14차 전체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 ①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히 추켜들고 그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구현한다.
- ② 총련을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힘있는 산 조직으로 꾸린다.
- ③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한다.
- ④ 조국의 통일과 통성변영을 위한 민족적위업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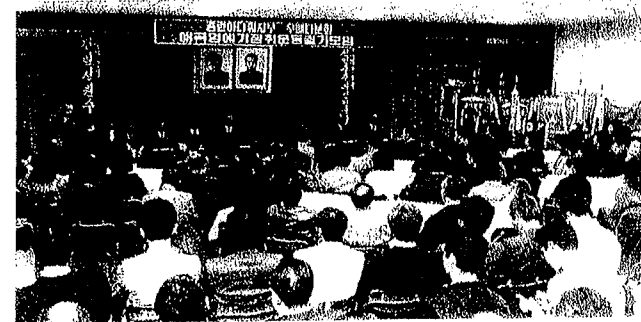
총련 제16차 분회위원, 선전원대회

갈수 있는 새로운 대중운동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총련은 1987년 10월 총련 제16차 분회위원, 선전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대중운동인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벌릴것을 제기하였다.

11월초 총련 도교도 足立지부 梅田분회와 오사까부 東大阪南 지부 長瀬분회에서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렸다.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애국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자!》는 구호 밑에 벌어진 이 운동에는 동포들의 애국적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분회는 물론



우메다분회의 쫓기모임

《애국영예기쟁취운동》: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전 동포적인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지역상공회, 조청반, 학교를 비롯한 3,000여개의 단위가 결기해 나섰다.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은 14전 대회결정집행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50일간집중행동》,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5개월혁신운동》, 제 15차 전체대회(1989. 9)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120일간운동》과 결합되어 힘차게 벌어졌다.

이 운동을 통하여 동포들의 애국적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젊은 상공인들과 새 세대 동포들이 1세 동포들의 뒤를 이어 보다 주인다운 태도로 분회와 지부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7차 분회열성자대회(1990. 11)에서는 39개의 분회를 비롯한 109개의 단위들에 《애국영예기》칭호가 수여되었다.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의 열의는 《남조선러객기살종사건》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감행된 반공화국, 반종련책동을 물리치고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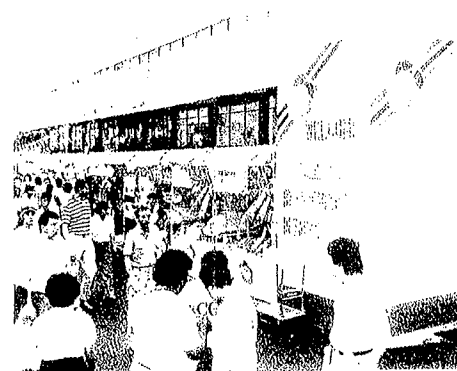
공화국창건 40돐경축 आय회



《애국영예기》를 수여받은 분회위원장들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창건 40돐경축 동포대야유회에 17만명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 7)에는 재일동포들이 주최국의 성원된 긍지를 안고 축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의 재일동포 봉사단의 활동



행사의 성과적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애국적인 젊은 상공인들과 조청, 녀맹에서는 봉사단을 무어 축전의 전기간 온갖 열성을 다하여 상업봉사매대사업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의 청년학생들, 《전대협》대표 림수경과 함께 진행한 《백두-한나대행진》, 판문점단식투쟁에도 주동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총련의 힘과 동포들의 애국적기개를 크게 떨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재일조선청년대표단



판문점단식투쟁을 벌이고있는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

15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1) 통일방안의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마련된 조건에서 통일방안을 바로 찾아 합의를 보는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 6 차 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련방 국가의 형성원칙과 방도, 련방 국가의 성격과 10대시정방침 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

1.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전지
2.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3. 북남간의 경제적합작과 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 보장
4.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남간의 교류, 협조 실시, 통일적발전 보장
5. 북남간의 교통과 체신연결, 리용
6.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 증진
7. 북남간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 민족연합군의 조직
8.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옹호, 보위
9. 통일이전의 북과 남의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10. 통일국가로서 전세계적으로 우호관계 발전, 평화에 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새로운 통일방안은 조선의 현실에 맞고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인것으로 하여 통일방도에 대한 합의를 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새로운 련방제통일방안이 나온것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통일론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민주세력들이 그를 지지해나서자 전두환은 1982년 1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 《방안》은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헌법,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이 고조되자 로태우《정권》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방안》도 본질에 있어서 전두환의 《방안》과 다름이 없었다.

특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다같이 미군철수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한데서 그 성격이 뚜렷이 나타났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내놓은 《통일방안》에 대한 신문자료

방안별 구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국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없음	없음
통일국가 형태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
방안내용	○ 민족통일정부 수립 ○ 통일결부밑에서 같은 권한,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차있게 실시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 국민투표로 통일헌법 확정 ○ 총선거, 통일국회와 정부구성	○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완성단계
과도체제	없음	《남북한 기본관계와 잠정협정》 이행단계	남북연합
외국군대	미군철수	미군유지	미군유지

조국통일방안대비표



남조선의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한편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재야단체와 개별적인사들 속에서는 통일방도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민주세력이 《련방제 통일론》을 지지하는 속에서 1989년 문익환목사가 공화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주석님을 만나뵙고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일치와 합의를 보게 되었다.



제 1 차 범민족대회

1991년에는 김대중의 《공화국 련합제안》이 나오는 등 재야세력, 민주화세력들의 통일방도론의는 련방제방안으로 지향되어 갔다.

그리하여 1990년 8월 15일에 열린 제 1 차 범민족대회에서는

련방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해나갈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련방제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조선민족은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꺾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제 1 차 범민족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중에서

《...셋째, 우리들은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통일문제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련방제방식에 의한 길이다. 우리들은 <두개조선>을 합법화하기 위한 <북방정책>과 <유엔단독가입>시도를 반대하며 련방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해나갈것이다.》

2) 민족적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는것과 함께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간에 형성된 오해와 불신부터 먼저 없애야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초 미국과 전두환《정권》이 《신랭전정책》에 따라 새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남간의 군사적긴장상태는 한층 격화되기만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4년 1월 조미평화협정과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목적으로 한 3차회담제안을 내놓고 북남대화재개의 길을 모색하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4자회담과 북과 남의 쌍무회담만을 들고나오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에로 이어지는 일체 회담을 반대해나섰다.

1984년 8월말 남조선에는 례년에 드문 대홍수가 나서 20여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생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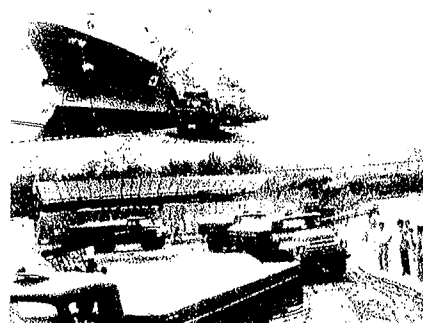
남조선인민들의 피해정형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즉시 공화국적십자회를 통하여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동포애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救護物資引渡引受事業을 제기로 북남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12년전에 중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가 다시 진행되게 되였다.

조국해방 40돐을 제기로 북과 남사이에 처음으로 예술단과 고향

* 구호물지 : 쌀 5 만석(7,500t),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많은 의약품 등이다.



구호물자 인도인수



평양에서 상봉하는 어머니와 아들

방문단의 호상방문(1985. 9)이 실현되였다.

날로 고조되어가는 통일운동에 당황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북남회담을 사회경제적교류에 국한시키려 하였으며 대화의 막뒤에서 공화국을 탄대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갔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적인 행위로 인하여 북남대화는 1986년 1월부터 중단되고 유일하게 진행되던 북과 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간의 올림픽회담도 남측이 공화국의 공동주최안을 거절함으로써 무산되고말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3자회담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협상제안과 평화발기들을 주동적으로 내놓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1986년 6월이후 군축과 관련한 제안들을 계속 제기하였으며 1988년 11월에는 단계적인 군축제안을 구체화한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1990년 5월에는 미국과 남조선이 《북남당사자 해결원칙》, 《선진뢰구축, 후군축협상》을 내세워 조선반도에서의 군사문제를 회피하는 조건에서 남측이 받아들일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군축방

	제안의 내용
1987. 7	각각 10만명이하의 병력을 줄일때 대한 단계적무력축감 제안
1987. 8	군축문제의 토의를 위하여 미국무장관도 함께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 제안
1987. 8	우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북과 남사이의 쌍무적에비회담이라도 먼저 진행할때 대한 제안

군축과 관련한 제안

안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진지한 노력은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립장, 민족단합과 통일의 립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평화보장 4원칙

- ①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 ②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 ③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범민족통일운동 공화국정부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살고있는 온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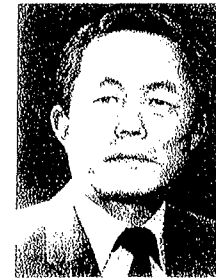
1980년 11월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해내외 각계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올데 대하여 발기하였다.

또한 1981년 8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민족통일축진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으며 1982년 2월에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100인련합회의 소집을 발기하였다.

이 제안들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와 찬동을



최덕신



최홍희



윤이상

받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북과 남의 통일에국력량이 당장 연합을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북과 해외의 역량만이라도 먼저 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심금을 털어놓고 협의함으로써 대련합실현의 기초를 마련해나갔다.

그리하여 1981년 7월 미국에 있는 《배달민족회》의장 최덕신의 공화국방문을 계기로 목사 김성락, 《국제태권도련맹》총재 최홍희, 서부도이쉴란드에서 사는 음악가 윤이상을 비롯하여 각이한 정견과 신앙, 직업과 경력을 가진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을 찾아갔다.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대화(1981. 11)

해외동포들속에서 련공, 련북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1981년 11월과 1982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3년 7월 교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 학자들의 심포쥘이 진행되었으며

1984년 12월에는 원에서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의 범동포대회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이 무어졌다.

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축진대회에서는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다음

해에 관문점에서 8.15범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백두산에서 범민족대회 개막식과 조국통일축진 백두-한나대행진 출정식이 진행된데 이어 관문점에서 제 1차 범민족대회가 열리었다.

대회에서는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남측대표가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범민족대회 결의문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채택하였다.

대회결의에 따라 1990년 11월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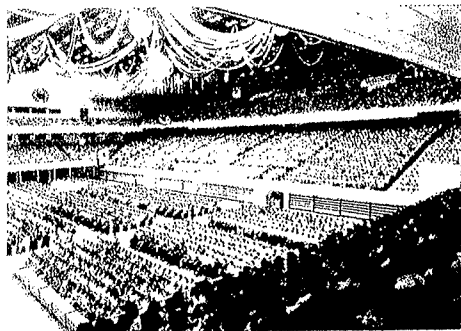


범청학련결성대회

1992년 8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이 결성되었다.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직화된 힘으로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결성된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의 연합조직이다.



조국통일축진대회장

재일동포들의 련방제통일운동

조선이 분열되어 35년간 조국통일을 갈망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온 재일동포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남다른 기쁨과 흥분속에 받아안았다.

총련은 동포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1980년 11월에 진행된 제12차 전체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체 동포들을 련방제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가두선전과 출판선전물보급, 동포집방문을 비롯한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하여 《민단》과 미조적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속에 새로운 통일방안의 내용을 적극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민단》, 미조적동포들속에서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기운이 높아졌으며 《조선의 통일지지결의》를 채택한 일본의 여러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 련대성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련대성운동(1981.2-1982.11)

- 일본의 42개 도, 도, 부, 현에서 920여차례의 련대성운동 진행
- 각 정당, 사회단체의 저명한 인사들이 650여건의 성명, 담화 발표
- 일본의 42개 도, 도, 부, 현의 대표 800여명의 참가밑에 조선통일 지지운동전국집회 진행
- 12개의 지방자치체와 1,781개의 의회가 조선의 통일지지결의 채택
- 세계 42개 나라와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의 참가밑에 조선의 통일 지지청년국제회의 진행



가두선전을 벌리는 총련일군들



가극 《어머니의 소원》의 한 장면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일본공연(1982)

단이 창작공연한 가극 《어머니의 소원》과 1982년 4월과 1986년 5월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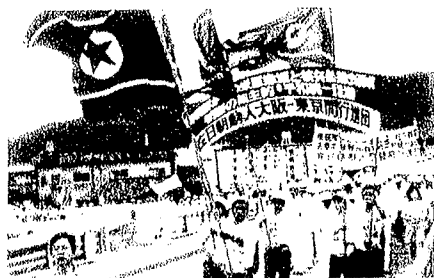
행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일본공연이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민족단합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련과 《민단》은 1985년 8월에 조국해방 40돐공동예술공연을 성사시키었고 중앙과 지방들에서는 172건의 각종 공동행동이 실현되었다.

총련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2년 6월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와 핵무기철거의 요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축진 도보행진》(오사까-도쿄)과 서명운동(47만명이 참가)을 조직하였으며 1986년까지 해마다 6.25때에는 대회와 시위행진을 조직하였다.



조국해방 40돐공동예술공연



오사까-도쿄간 도보행진

가극 《어머니의 소원》: 1971년 4월 남조선 《육군보안사령부》가 날조한 《학원침투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된 동로류학생인 서승형제의 어머니인 오기순의 투쟁을 형상한 가극이다.

뿐만아니라 1983년 6월에 열린 평화를 위한 세계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와 대회들에 대표단을 보내여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갔다.



서명운동을 벌리는 재일청년학생들

총련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운동과 공화국의 평화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여 1988년에만도 10여차의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2,000여회의 각종 모임에 연 13만명의 동포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조청과 류학동을 비롯한 재일청년학생들은 북남학생회담과 《국토순례대행진》의 실현을 위하여 100만명서명운동을 벌리는 한편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이 함께 입을 티샤쯔 1만벌을 마련하는 등 온갖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의 3자련대를 강화하며 범민족통일운동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다해나갔다.

총련은 1989년 7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국통일축진대회와 다음 해에 조직된 제1차 범민족대회에 자기 대표를 보내여 대회의 성공과 범민련의 결성에 주인공게 기여하였다.

재일청소년학생들도 범청학련의 결성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조국통일축진, 림수경학생 석방요구 50만명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운동을 벌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보람있게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에 세계 각지에서 살고있는 해외교포들속에서는 총련과 재일청소년학생들의 통일애국의 리념과 투쟁경험을 두고 해외교포조직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배우는 기운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제 7 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공화국에서 강성대국건설과 남조 선에서 반미자주, 민주화를 위한 투쟁(1990—)



《랭전》의 종식과 점예한 대결장 으로 된 조선반도

1980년대말에 이르러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 대미타협의 길로 출발음치기 시작한 소련은 1987년 12월 쏘미수뇌자회담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중거리핵미사일全廢條約》(INF조약)에 조인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쏘련군상용무력의 일방적인 축감조치를 발표하였다. 뿐만아니라 1990년에는 니까라과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중단하였다.

동유럽에서는 1989년 8월 뿔스카로부터 시작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 마자르, 벨가리아, 로므니아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련이어



쏘미수뇌자회담에 관한 신문자료



베를린장벽의 해체

《8월사변》

1991년 8월 19일 쏘련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반고르바초브세력이 일으킨 정변.

그들은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였으나 군대의 대다수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정변시도는 실패하였다.

무너졌으며 11월에는 《동서랭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해체되고 동부도이칠란드가 서부도이칠란드에 흡수통일되었다.

중국에서도 1989년 6월에 《天安門事態》가 일어나 혼란상태에 빠졌다.

급격한 사태변화를 배경으로 고르바초브와 미국대통령 부쉬는 1989년 12월에 말따회담을 가지고 쏘미적대관계를 동반자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합의를 보고 《랭전》종식을 선언하였다.

쏘련에서는 1991년에 일어난 《8월사변》이후 쏘련공산당이 해체되고 12월 26일 쏘련최고쏘베트회의가 쏘련해체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제 2차 세계대전후 지속되어온 쏘미대결구도, 《동서랭전》구조가 무너지고 세계는 《脱冷戰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련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주요전략으로 내세웠다.

1991년 1월 미국대통령 부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새로운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전략

이 전략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힘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전략이다.

기본내용은 ① 군사, 경제적압력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평화적이행》시켜 미국이 《자유세계의 기수》로 되며 ②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에 유리한 세계경제질서를 세우며 ③ 명분만 세우면 미국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임의의 지역분쟁에 군사적개입을 한다는것이다.

세계질서란 랭전의 위험이 없고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화된 세계를 만들려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부쉬

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미국주도의 지배질서수립을 위하여 나토와 미일《한》군사동맹체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1986년 8월부터 추진시켜오던 우루과이라운드(GATT각료회의)를 빨리 타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힘에 기초하여 자원과 동력의 주요전략지대를 독점하고 미국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1991년에 페르시아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일어난 분쟁들에 직접 끼여들어 군사적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반제자주력량의 일익을 담당하여온 빨럭불가담운동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

우루과이라운드

미국 등 일부 자본주의 나라들이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협상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을 발표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여 《관세 및 그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관계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한다는 최종의정서를 채택하여 1994년에 발효되었다. 1995년 1월에는 그 실천을 감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를 내왔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촉진되었다.

말려들어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조선과 이란, 쿠바 등 반제반미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나라들은 미국에 의한 체제전복과 군사적 공격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신문자료

* 페르시아전쟁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이 중동에서 자기의 석유경제리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저들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군을 조직하여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라크와 진행한 전쟁을 말한다.

유럽동맹(EU)

경제적통합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유럽공동체(EC)를 1993년 11월에 유럽동맹(EU)으로 개명하였다. 그후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는 경제통화통합조치로 단일화폐인 유로(€)를 쓰고있으며 외교안전보장정책, 사법 및 내무에 이르기까지 협력해나가는 정치적 및 경제적 공동체를 꾸려나갈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성원국은 2006년 2월 현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25개국이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一極化기도가 로골화되자 유럽동맹나라들은 유럽통합의 움직임을 적극화하였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는데로 나아갔다.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와 거정산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어나갔다.

《랭전》의 종식으로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치구도는 점차 조미대결구도로 바뀌어지고 역량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세계화》전략실현의 주공방향을 돌리고 로씨야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일《안보》체제를 축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배질서를 재정립해나갔다.

특히 공화국을 《랭전후의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조선반도 120일간 전쟁씨나리오》(1991. 4)와 《93조선반도 유사시씨나리오》(1992. 하반기)를 작성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반도는 《랭전》종식후 주체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으로 전변되었으며 공화국은 翼側도 후방도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선인민앞에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공화국 인민들의 투쟁

1) 사회주의가 나아갈 길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악선전을 요란하게 벌리었다.

그들은 베를린장벽의 해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의 영상을 대대적으로 돌려 사회주의리념자체가 본래 잘못된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리념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였으며 사회주의당들은 자기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자체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유럽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공화국도 곧 무너질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주체79(1990)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가
나아갈 길을 밝히신 대표적인
로작들(1991~1994)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
-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 3)
-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 10. 10)
-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 3. 1)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1)

년 1월 1일 신년사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과학적으로 밝히신 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990년 1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가 나아갈 길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원인

과 그 교훈들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또한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을 해명하시고 조선로동당이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학설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1990년 1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었다.

공화국인민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으로써 령도자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할 불같은 신념을 그 대로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지식인대회(1992. 11), 전국로병대회(1993. 7),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 8차대회(1993. 2),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1993. 12) 등 여러 대회들을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 시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평양—개성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옳은 지도사상을 가지는것
-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
-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
- 자주성에 기초한 동지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



전승기념탑의 《승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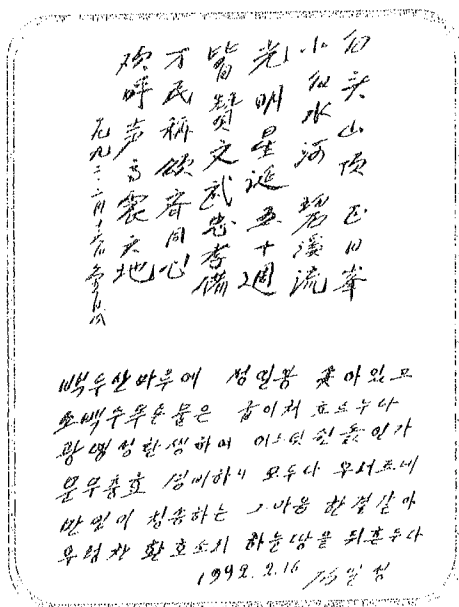


통일거리

속도로 등 수많은 대상건설이 완공 되었으며 평양의 통일거리를 비롯

하여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들도 많이 건설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탄생 80돐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자랑스럽게 널리 보여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다.



송시 《광명성찬가》

주석님께서서는 공화국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2월 16일 아침에는 송시 《광명성찬가》를 친히 쓰시여 장군님께 보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님의 탄생 8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1부(항일혁명편) 제 1, 2 권이 출판되었으며 경애하는 주석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원수 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1992. 4. 13)

평양에서는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대표단을 비롯하여 130여개 나라의 420여개 대표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 진보적정당대표들은 행사에 참가하면서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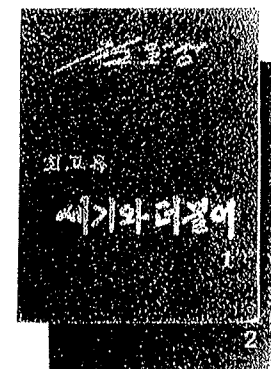
확신과 신심을 간직하게 되었으며 4월 20일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를 채택발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70개 공산당, 노동당들과 진보적정당대표들이 서명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운동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재건하고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밝혀준 세계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되었다.

2) 나라의 자주권 고수

반공화국압살정책 1980년대말부터 공화국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공화국은 1988년 12월부터 베이징에서 조미접촉을 진행하였으며 1989년 12월부터는 미국의 정계, 학계, 종교계인사들을 초청하여 조미관계개선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갔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1부 (항일혁명편) 제 1, 2권



연합성명을 실은 신문지료

또한 1990년 5월부터는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골반환사업에서도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꿀 대신 1989년부터 《냉변핵의혹》을 들고 나와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 공화국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집요하게 강박하여 나섰다.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외교전을 펼쳐나가시었다.

그리하여 1991년 6월 11일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근원과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있는 리유, 핵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공화국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

연합성명이 발표된지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세계의 90여개 나라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람들이 이를 지지하여 400여건의 성명, 담화를 발표하였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1991년 9월 남조선에 배비한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을 발표하고 로테우를 시켜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다는 《핵무기부재선언》을 발표하게 하는 한편 조미고위급회담개최에 응해나섰다.

1992년 1월 뉴욕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결국

연합성명의 기본내용

•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근원

남조선에 1,000여개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됨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날이 갈수록 더 엄중해진것이다.

• 공화국의 원칙적립장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철수,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한다는것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은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5월부터 6 차례에 걸쳐 사찰을 받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 공화국의 핵시설들이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을 위한것임을 확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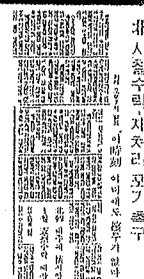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인 1993년 1월에 미국대통령이 된 클린톤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아니라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공화국이 신고한 플루토늄량과 사찰단의 추출량이 《불일치》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핵무기에 의한 선제타격까지 예견한 집단적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1993년 1월 26일에는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여기에 20만명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련관도 없는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까지 조작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확대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 국제원자력기구 : 원자력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에 협조를 도모하며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무어진 국제기구이다. (1957. 7. 29 창설,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



《핵무기부재선언》에 관한 신문지료

조미회담 : 임중하게 번져지는 조선반도정세를 놓고 세계는 군사적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였던 강대국인 소련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무너진 조건에서 작고 분열된 나라인 조선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때인 1993년 3월 8일 전국, 전민, 전군에 準戰時狀態를 선포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발표되었다.

3월 12일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뿐만아니라 3월 16일부터는 미국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맞서 인민군대가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갔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핵전략의 기동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미국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계획보다 앞당겨 중지하고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황한 미국은 시간을 얻어 대조선정책을 재정비하는 한편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조미회담마당에 나오게 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1993년 3월 8일 제0011호 제 7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전문을 실은 신문자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전문을 실은 신문자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전문을 실은 신문자료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대결전은 1993년 6월 뉴욕에서 진행된 1단계회담과 7월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2단계회담으로 이어졌다.

1, 2단계의 조미회담에서 미국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국

	기 간	장 소	결 과
1 단계	1993. 5. 2-11	뉴욕	조미공동성명 채택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2 단계	1993. 7. 14-19	제네바	핵문제해결과 현안문제들을 토의하며 조미사이의 전반적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안으로 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조미 1, 2단계회담과 그 결과

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며 북남대화를 재개하여야 제3단계조미회담을 할수 있다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놓으면서 지연전술로 나왔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전면사찰을 받아들이라고 강박해나섰으며 더우기 공화국의 핵활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2개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뿐만아니라 조선전쟁을 가상한 컴퓨터모의전쟁을 진행하는 한편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기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인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정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으며 긴장상태는 최대로 팽팽해졌다.

미국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1994년 6월 13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공화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즉시 탈퇴한다는 것을 단호히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또 하나의 폭탄선언으로 되었다.

미국은 1994년 6월 미국 전 대통령 카터를 공화국에 보내어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카터를 만나시여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 회담을 재개하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십시오. 으로써 화를 복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시었다.

그리하여 1994년 8~10월 사이에 제 3 단계 조미회답이 제 네 바에
서 재개되었으며 마침내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1994년 10월 20일 조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 경수로제공 및 대용에
조미기본합의문 주요내용
비르기보장과 관련한 담보

- ### 조미기본합의문 주요내용
- 미국이 책임지고 공화국에 총 200만 KW발전능력의 경수로들을 2003년까지 제공
 - 경수로들을 건설할 때까지 공화국에 미국이 배해 50만의 중유 보상
 - 공화국에 대한 일련의 경제적제한조치들을 해소하는것을 포함하여 무역의 투자장벽을 완화
 - 평양과 위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
 - 미국은 조선에서의 핵무기사용 금지

제네바에서의 조미기본
합의문 교환

진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미합중국대통령이 담보서하을 보내어왔다

[illegible]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낸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

$$\text{fixcol}(\gamma)$$

1) When to continue, to you that I will use the full powers of my office to facilitate arrangements for the financing and construction of a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 project within the USSR, and the funding and implementation of interim energy assistance arrangements for the USSR,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reactor unit of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is reactor project is not required for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I will use the full powers of my office, to the extent necessary, such a project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approval of the U.S. Congress. Similarly, in the event that the United States energy assistance is not provided for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USSR, I will use the full powers of my office to provide, to the extent necessary, such interim energy alternatives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viii) subject this course of action so long as the Greek Republic complies with procedures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IVED

Rin Clinton

서한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보내었다.

국교관계도 없는 적대국,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으로부터 담보서한을 받아낸것은 조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역사적인 승리였다.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공화국은 주체조선의 위용을 세상에 보여주었으며 자주성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3) 《출포성없는 전쟁》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서거 북남최고위급회담개최합의에 관
한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열망은 날을 따라 높아만
갔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1994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수습차례의 교시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업적

- 인민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
-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건설하신것
- 우리 인민을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키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신것
-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신것
- 조국통일과 세계의 자주화,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것

7월 6일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전화로 회담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시였다.

또한 7월 5일과 6일에 걸쳐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7월 7일에는 이른새벽부터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식사도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7월 8일 2시, 밤이 깊도록 집무를 보시던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집무실에서 ^{후직}殉職하시였다.

이날 금수산의사당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비상회의가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크나큰 슬픔을 굳센 의지로 이겨내면서 정치국성원들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조의행사를 잘 조직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7월 9일 12시, 중대방송으로 경애하는 주석님의 서거를 알리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 발표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자 경애하는 주석님



경애하는 주석님을 부르며
통곡하는 공화국인민들



경애하는 주석님의 추모소
식을 실은 남조선신문자료

을 목놓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온 나라는 피눈물속에 잠겼다.

주석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은 낮에 밤을 이어 그치지 않았고 주석님을 추모하여 드리는 화환과 꽃다발은 숲을 이루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자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분향소}焚香所를 차려놓고 경애하는 주석님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추모의 글을 보냈다.

총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130여개의 해외동포조직대표단과 단체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조선동포들이 련일 조전을 보내고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수많은 조의방문단을 조국에 보내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서거를
애도하는 재일동포들

미국대통령 클린턴과 캄보자의 노르돔 시하누크친왕을 비롯한 세계 166개 나라의 국가, 당수반들과 수많은 조직대표들이 공화국대사관과 대표부를 찾아 조의를 표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하였고 조전을 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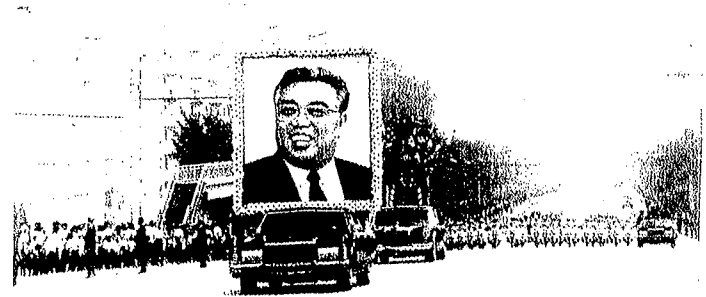
유엔청사에는 조기가 게양되었으며 유엔사무총장은 《김일성주석
은 력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라고 하면서 조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장군님께서 주석님의 령구가 모셔져있는 금수산의사당에 나
가시여 호상을 서시였으며 일
군들에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석님의 뜻대로 인민
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해
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
다.



경애하는 주석님을 추모하는 외국인들과
유엔본부정시에 게양된 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애
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한번



경애하는 주석님과의 영결식

만이라도 더 뵙고싶어 하는 인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애
도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시었다.

한편 경애하는 주석님과의 영결식때 주석님께서 늘 타고 다
니시던 승용차를 령구차로 하고 목란꽃으로 차를 장식하며 령
구차앞에는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태양상을 모시게 하시였
다.

그리하여 7월 19일 경애하는 주석님과의 영결식이 진행되었으
며 7월 20일에는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영결식과 추모대회를 통하여 인민들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
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모셔왔는가를 더욱더 가슴깊이 느꼈으며
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
게 되었다.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들
은 《김일성주석이 없는 북조선은 붕괴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서
《북조선조기붕괴설》을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세계정치계와 평론가들은 《북조선에 생겨난 국가수반의 공백상
태》를 두고 제나라의 억측들을 내뿜었으며 공화국이 어떤 정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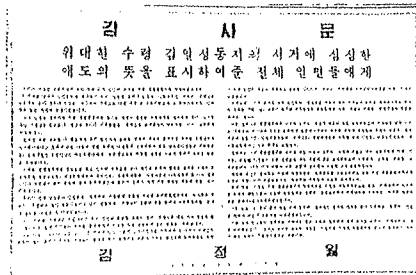
실시하겠는가를 주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서거 100일추모회가
있는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
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발표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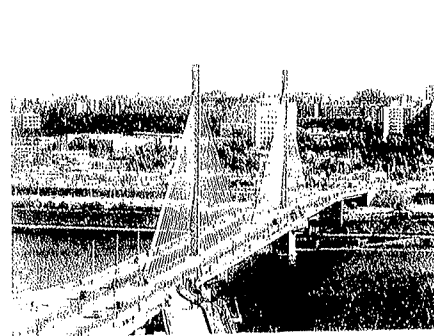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담화에서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
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
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제승완성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한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주석님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10월 28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과 11월 1일
에 발표하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사
회주의위업을 제승완성해나갈 굳센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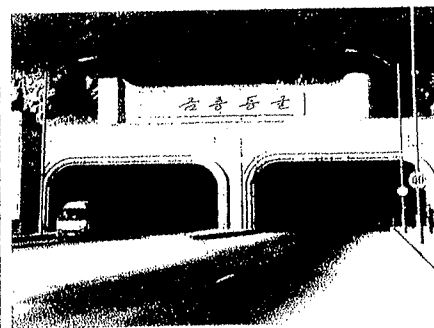
한편 장군님께서서는 1994년 7월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
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신데 이어
경애하는 주석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류다리(2단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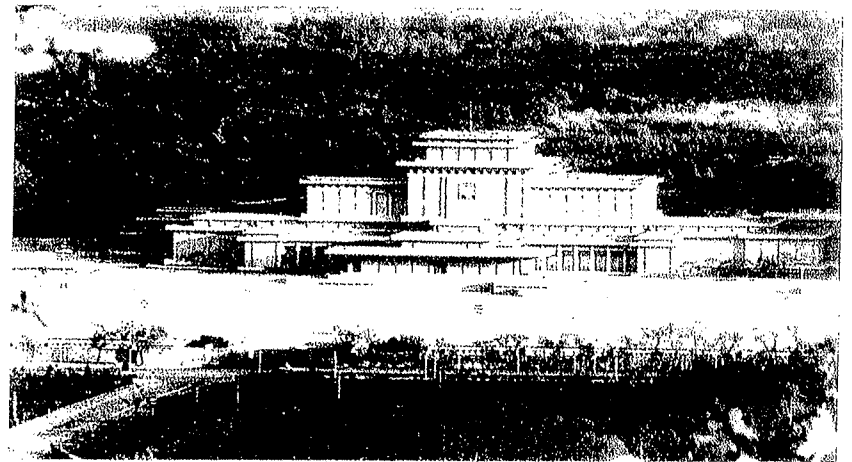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감사문



청류다리



금룡동굴



금수산기념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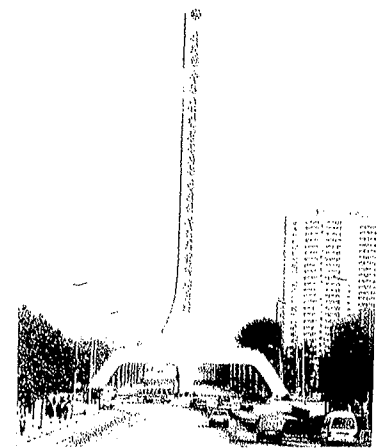
금룡 2 동굴을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1994년 7월 금수산기념궁전을 새로 꾸릴것을 받기하시고
주석님의 서거 1 뚝에 즈음하여 개관하도록 하시었다.

공화국에서는 주석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영생탑을 세우고 태양상을 모시였으며 1997년 7 월에는 주체년호
와 태양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 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 1 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주석님
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규정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식대로 주체혁
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줄
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금수산기념궁전도로의 영생탑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에는 진국이라 가장 준엄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공화국을 고립압살, 질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은 군사적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봉쇄의 도수를 높여 다른 나라들이 공화국과 일체 경제협조관계, 무역거래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 3차 7개년계획수행이후 조성된 경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시된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도 제대로 관철할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미일《한》이 결탁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며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화국인민들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정치, 경제, 군사, 사상문화에 이르는 전면대결전인 《종포성없는 전쟁》을 벌려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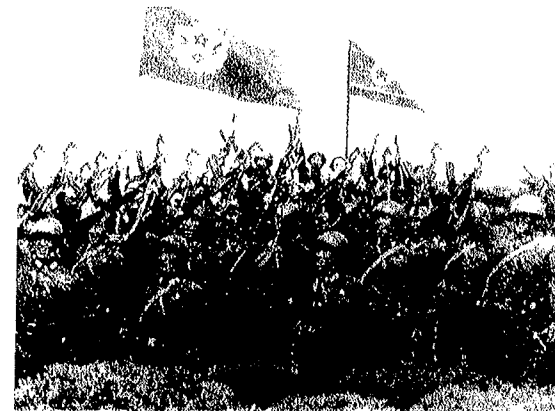
게다가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공화국의 전통적인 대외시장구조가 무너지고 원료와 자재, 설비들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몇해째 련이은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농업생산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엄혹한 난관이 앞을 막아서자 대오안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식민지노예가 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 : 199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경제전략을 말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석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확고한 결심밑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고난의 행군》을 단행할것을 결심하시였다.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다박솔초소)를 찾으신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 어렵고 힘든 경제건설과업을 맡기시여 그들이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되게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군장병들은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한편 어렵고 힘든 대상건설을 직접 맡아 인민군대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겹겹이 막아나서는 난관을 극복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

- 1995. 1 다박솔초소
- 1996. 2 351고지초소
- 1996. 11 초도의 섬방어대
- 1997. 4 1211고지방어부대
- 1997. 9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1997. 10 공군사령부

1994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75차례 걸쳐 560개 단위의 군부대현지지도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하며 100리물길굴을 뚫었다.

장군님께서서는 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규정하시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삼시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급속히 퍼져 《고난의 행군》을 다그치는 위력한 힘으로 되였다.



안형묵

연형묵을 비롯한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문제를 풀었으며 고산지대에서 2모작, 3모작을 성공시켜 식량문제까지 자체로 해결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사회주

의 강행군의 위력한 추동력인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1998년 1월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직접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자강도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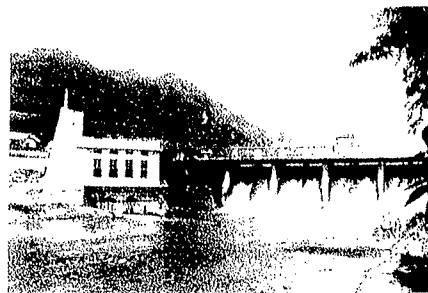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의 구호말에 생산투쟁에 궤기해 나선 로동자들

그리고 3월에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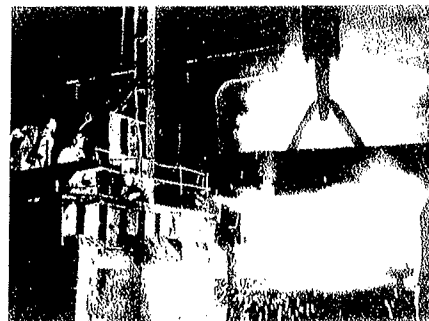
자강도와 성장에서 타오른 대고조의 불길따라 온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인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공화국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이 단행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난관과 시련 앞에서 참고견디기만 한것이 아니라 용감히 맞받아나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조선식행군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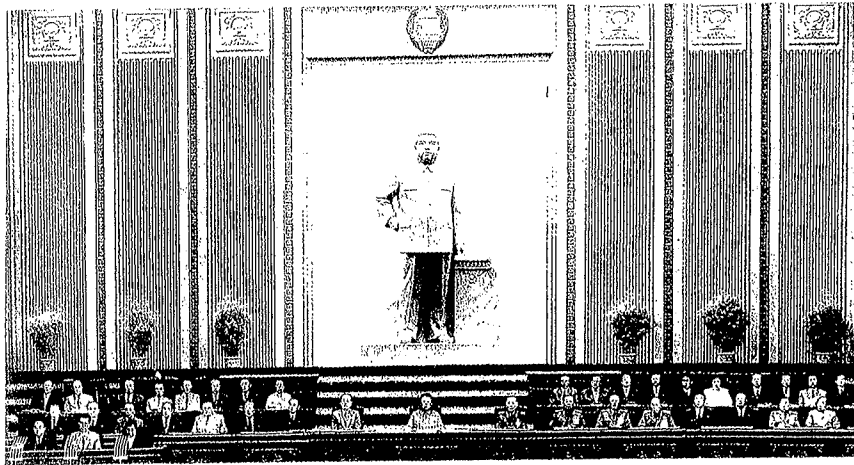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게 된 공화국인민들은



자강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장강2호발전소



대고조의 앞장에 선 성강의 로동계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주석단

한결같이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실것을 절절히 바랬다.

이에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97년 10월 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1998년 9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었다.

4)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강성대국건설의 설계도 부강조국을 건설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웅대한 목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994년 12월 31일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는것을 밝히시고 1995년 1월에는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

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그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나가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1998년 5월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밝히시고 1999년 1월 1일 그를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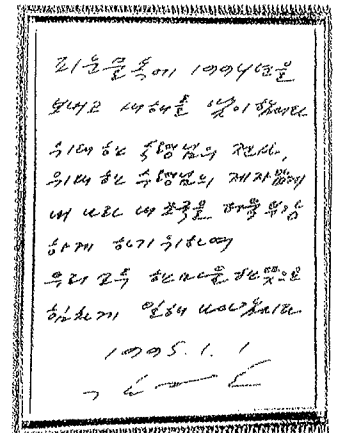
강성대국건설구상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주석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우시려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확고한 결심이 깃들어있다.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의 포성이 터진 첫 시기부터 그를 허명한것이라고 비방중상하며 《불가능설》까지 내뿔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99년 1월 일군들에게 우리가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수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지금 나는 새로운것을 많이 구상하고 전개해나가고있다, 나는 뚜렷한 설계와 승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확신성있게 내밀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이 솟아날 휘황한 레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강성대국건설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9년 1월 《고난의 행군》, 강행군기간 강성대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투쟁경험도 쌓은것만큼 이제부터는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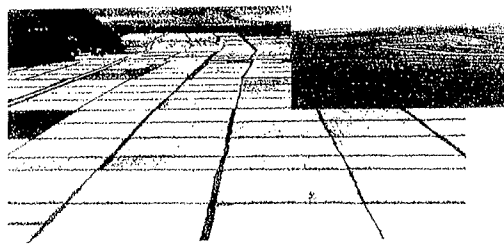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리자!》라는 구호밑에 전기문제와 먹는 문제를 푸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공화국에서는 미국이 경수로건설을 지연시키고 중유제공을 태공하고있는 조건에서 전기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하여 이미 건설한 발전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것과 함께 대규모발전소들을 새로 더 건설하는데 국가적힘을 넣었다.

동시에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2000년 10월까지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와 태천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발전소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적극 밀고나갔으며 토지정리와 풀먹는 집짐승



토지정리로 변모된 농장포전

† 두벌농사 : 2모작농사를 말한다.

토지정리

대규모적인 토지정리사업은 강원도에서 경험을 창조한 다음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 순차별로 추진되였다. 5년동안에 전국적으로 23만 7,000여ha의 토지가 정리되어 한개 군의 부침땅면적이 넘는 7,720여ha의 토지가 새로 늘어났다.



감자꽃이 핀 대흥단군 종합농장의 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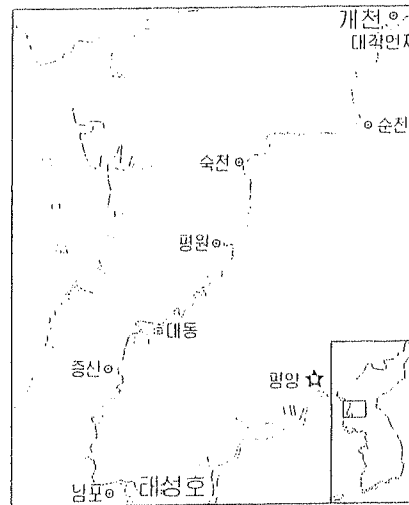
기르기, 가금업과 양어에도 큰 힘을 넣었다.

량강도 대흥단군에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황해남도 연안군과 자강도 장강군에서 두벌, 세벌농사의 좋은 경험이 창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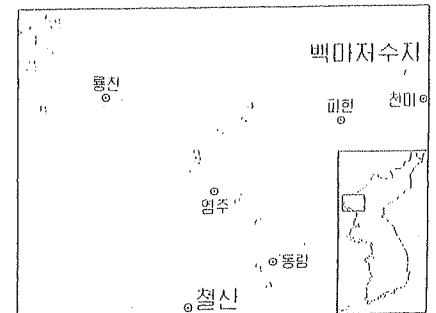
또한 개천-래성호물길공사(2002. 10)와 백마-철산물길공사(2005. 10)가 완공되였다.

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소, 염소목장이 일떠서고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 타조목장, 양어장들이 련이어 건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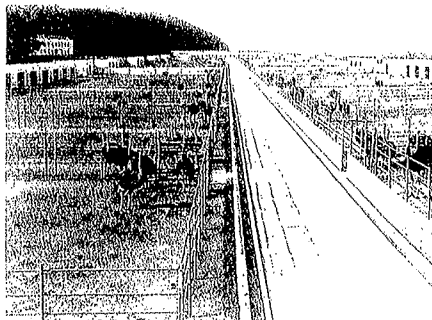
공화국에서는 전력문제와 먹는 문제해결을 앞세우면서 실리주의원칙밑에 전반적경제를



개천-래성호물길락도



백마-철산물길락도



현대적으로 건설된 리조목장



룡문대굴

활성화시켜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모든것이 긴장하고 부족한 형편에서 반드시 돌려야 할 공장, 기업소들에 원료와 자재, 동력을 집중하며 거기에 인민군군인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기간공업부문 중요단위들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다른 부문, 단위들에서도 생산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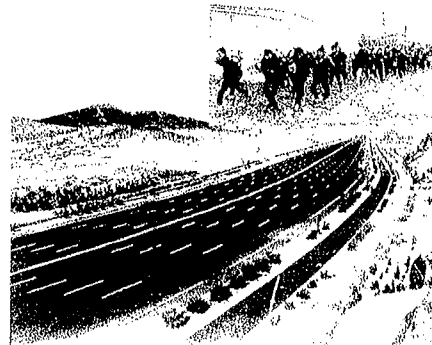
그리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해마다 떨어졌던 년평균공업생산액이 1999년부터 올라서게 되었다.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도로건설, 하천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구월산, 룡문대굴을 비롯한 명승지들이 보다 훌륭히 꾸러졌다.

또한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를 본보기로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



서흥군 범안리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



광명성제염소

게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여리나 되는 평양-남포사이에 청년영웅도로가 건설되고 함경남도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광명성제염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공화국에서는 경제강국건설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었다.

1999년이 과학의 해로 정해지고 기초과학부문을 비롯한 첨단과학부문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공화국에서는 정치,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

③ 반미자주,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 《문민정권》반대투쟁

《문민정권》의 수립 《공안정국》속에서 파썸적 탄압이 강화되자 위축된 야당은 점차 보수화되어 재야세력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5공청산》을 애매하게 넘긴 로태우는 《보수대련합》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야당세력을 끌어들여 《정치계재편성》을 다그치었다.

이리하여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합의》가 발표되고 5월에 《민주자유당》(민자당)이 나오으로써 《与小野大》정국이 무너지고 《巨大与党》체제가 되살아났다.

이러한 속에서 로태우는 《대통령선거공약》들인 일련의 민주적인 개혁조치들을 일체 보류, 백지화하였다.



《민자당》을 내온데 대한 신문자료

이에 격분한 각계층 인민들은 1990년 4월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전취국민련합》(국민련합)을 결성하고 《민자당》해체운동을 세차게 벌렸다.

《민자당》해체운동은 1991년

*《신민주공화당》: 김충필을 중심으로 이전 《민주공화당》계열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1987년 10월 30일에 무어진 정당.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5석을 차지하여 제3야당으로 되었다.

《정보사부지사건》

1992년 7월에 폭로된 6공최대의 사기사건이다. 합동참모본부군사자료과장 등 토지사기집단에 의해 군부소유의 《정보사》부지를 불하하는 과정에 보험회사로부터 660억원을 사기하였다.



수서특혜 부패정권

반《정부》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4월 《강경대학살사건》이 일어난 후 로태우퇴진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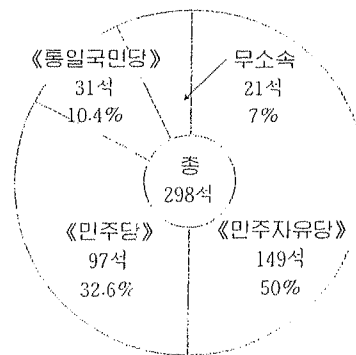
그 과정에 대학생들의 焚身自殺을 통한 죽음의 항거가 련이어 일어났다.

1991년 5~6월에 걸친 로태우퇴진운동은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의 제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3월 24일에 있는 《총선》에서 《민자당》이 얻은 의석수는 《국회》

총의석수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 《통일국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이었다.

《총선》에서의 패배와 《정보사부지사건》 등 부정사건의 폭로때문에 정치적위기를 겪은 로태우는 9월 18일 《민자당》탈당을 발표하고 《3당합당》때의 밀약에



제14대 《국회의원선거》득표률

*《강경대학살사건》: 명지대학총학생회장의 체포에 대한 항의시위에 참가하였던 연세대학교 학생 강경대가 전투경찰의 집단구타에 의하여 학살된 사건이다.

따라 김영삼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우고 《민주화투쟁의 기수》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또한 10월 7 일에는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안기부》로 하여금 《선거중립선언》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재야세력들속에서 일어난 의견대립을 리용하여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을 뒤에서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날조선전을 벌리면서 민주세력의 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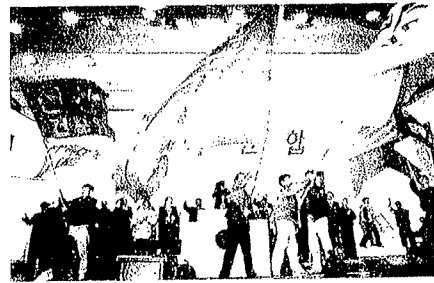
민주세력은 1991년 12월에 최대의 재야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결성한데 이어 《민주대연합》의 구호아래 《범민주단일후보운동》을 벌리면서 《민주당》의 김대중을 지지하였으나 일부 세력은 재야의 독자적후보를 내세웠다.

1992년 12월 18일 민주세력의 완전통일을 이루지 못한채 치른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김영삼이 당선되고 《문민정부》가 서게 되었다.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30여년동안의 민주화운동과정에 《문민정권》이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군부와의 타협의 산물인 김영삼《정권》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있었다.



《신한국장조》기를 내는 김영삼



《전국연합》결성대회

김영삼은 군사《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신한국장조》의 구호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중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개혁》조치와 《력사바로세우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에서도 북남관

《력사바로세우기》

군사《정권》에 의하여 외국된 력사를 다시 평가하는 정책. 4.19인민봉기와 광주인민봉기를 정당한 민주화투쟁으로 다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숙군정변》과 광주학살의 주모자인 전두환, 로태우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이였다. 그후 인민들의 요구에 못 이겨 《대법원》은 전두환, 로태우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계개선을 바라는 여론을 배경으로 《동맹국보다 동족을 중시》한다는 《민족우선주의》를 주장했으나 미국과의 《공조》하에 《반북》대결에로 나갔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으로 올려세운다는 《세계화정책》을 내세워 후퇴의 길에 들어선 경제실태를 무시하고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때에 터진 《한보사태》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일대 혼란상태에 빠지고 외국투자자들이 일제히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 《문민정권》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로부터 남조선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 9월에 발족한 기구로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전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한다고 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韓寶사태》

1997년 1월에 《한보그룹》의 중심기업인 《한보강철》이 도산되면서 그의 부정용자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룹》이 정제, 재제와 결탁하여 5조원이상의 부정용자를 받았다는것이 폭로되어 남조선사회를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은 사태이다.



남조선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밑에 들어간데 대한 신문자료

《신공안정국》과 《문민독재》반대투쟁

통일정책과 경제정책에서 《문민정권》에 대한 기대가 깨여지고 《한보사태》진상 규명과정에 김영삼의 아들이 깊이 관여하였던 사실이 밝혀지자 김영삼《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거세차게 일어났다.

재야세력은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문민정권》을 반대하여 반미집회를 거듭 열고 남북핵시설의 공동사찰,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시설공개, 미국의 핵무기반입반대 등을 요구하여나섰다.

특히 1992년 10월 《윤금이살해사건》을 계기로 무어진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주도아래 미군범죄근절, 기지반대운동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그것은 점차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요구운동》으로 확대발전되어나갔다.

당황한 《문민정권》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를 기회로 삼아 《신공안정국》(弔問波動)을 몰아왔다.

김영삼은 자신이 조의표시를 외면했을뿐아니라 《국군》과 경찰

《주한미군지위협정》

미군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인정한 협정.

공무상의 범죄를 제외한 미군 및 가족들의 범죄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미군범죄근절운동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윤금이살해사건》: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남조선주둔 미군 2등병이 미군유용업소 종업원이었던 윤금이녀성(26살)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조문파동》에 관한 신문자료

연세대학교사태

《8.15청년학생대축전》을 열기 위하여 1997년 8월 14일부터 연세대학교에 모여온 청년학생들을 무력으로 탄압한 사진.

남조선당국은 수천명의 기동경찰대를 내몰아 4,300여명을 강제연행하고 구속기소하였다.

이라고 하면서 조의를 표시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여나섰다.

뿐만아니라 1994년 《8.15경축사》에서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흙수룩일》정책을 드러내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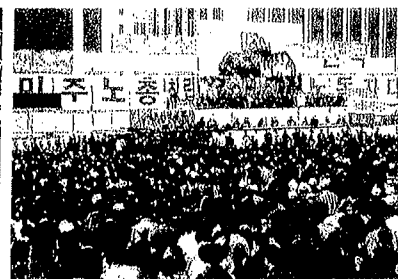
김영삼은 1996년 8월 《연세대학교사태》에서와 같이 무력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였으며 범민련남측 본부와 《한총련》을 《좌경폭력단체》, 《북에 맹종하는 리적단체》로 몰아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공안정국》속에서도 《문민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1995년 11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로총)을 결성하고 《로동법》개정안과 《안기부법》개정안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리었다.



수천명의 청년학생들을 체포한 《문민정권》



《민주로총》결성대회



《로동법》, 《안기부법》개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1996년 12월 《로동법》개정안과 《안기부법》개정안이 여당 단독의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것을 계기로 60여개의 재야단체가 노동자들의 투쟁이 합세하여 보다 힘찬 투쟁을 벌어나갔다.

이렇게 되자 김영삼《정권》은 두가지 악법을 폐지하며 다시 개정할것을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1996~1997년의 노동자투쟁은 노동운동이 사회전반을 휩쓸어 《문민독재》의 반동성을 폭로한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문민독재》반대투쟁은 김영삼《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대통령선거자금》공개를 요구하는 범민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다.

2) 민족자주, 민주화를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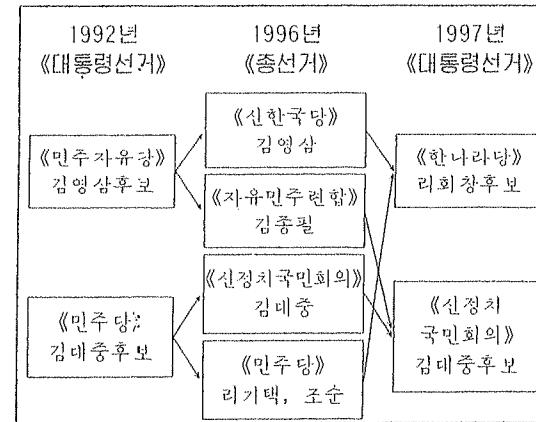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수립 《문민독재》반대투쟁으로 들끓던 남조선의 정국은 1997년초부터 제15대 《대통령 선거전》으로 넘어갔다.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의 정계는 여러 세력으로 다시 편성되었다.

김대중은 1995년 9월 《신정치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김종필세력과 연합하여 《대통령》후보로 나섰다.



《문민독재》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1990년대 남조선의 정당재편과정



《한나라당》을 내온데 대한 신문자료

《민자당》은 《민주당》과 합당하여 1997년 11월 《한나라당》을 내고 리희창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민주세력은 1997년 10월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을 못하고 권영길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선거전》이 격화되는 속에서 우세를 보이던 리희창은 《兵役回避事件》이 드러나 인기를 잃고 완전히 수세에 빠져들어갔다.

그리하여 12월 8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고 다음해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국민의 정부》수립에 관한 신문자료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을 이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출현한 김대중정권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병역기피사건》: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리희창이 자기의 지위를 악용하여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키고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이다.

현하기 위한 《국정개혁》을 내세웠다.

또한 《제2의 건국》의 구호아래 혹심한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의 정리재편성 및 《재벌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밑에서 진행된 일련의 구조조정의 결과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틀어쥔 반면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이 강요되었다.

1998년 2월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인 《整理解雇制》가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에서 해고조치가 연이어 취해진 결과 엄청난 실업자를 낳게 하였다.

한편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이전 《정권》의 강경태세를 시정하였으나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대미종속관계와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서는 종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대중은 1998년 5월 남조선주둔 미군에게 보낸 《메세지》에서 남조선의 《안보와 민주가 미군장병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하였으며 6월 미국방문시에는 통일후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공조》, 《긴밀한 안보협력체계수립》을 확인하였다.

1998년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은 오부씨총리와와의 회담을 통하여 《한일협력선언》을 발표하고 30억US\$의 긴급융자의 대가로 일본에 과거청산문제해결의 요구를 하지 않을것과 일본문화개방을 약속하였다.

크게 변함이 없는 대미대일정책은 보수세력과의 연합으로 생겨난 《국민의 정부》의 정치적제한성을 보여주었다.



《한일협력선언》을 실은 신문자료

민족자주, 민주 화운동의 확대

1990년대이후 남조선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퍼지고 중산층을 비롯하여 많은 계층들이 사회변혁보다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속에서 재야세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정부》와의 협력밑에 인권, 환경, 여성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재편성의 흐름에 밀려들어 가는 속에서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 벌어졌다.

1998년 7월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공동으로 《생존권사수 전국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해 나선것이 제기가 되여 60여개의 로조와 1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의 무조건 철폐를



《정리해고제》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요구하여 파업에 떨쳐나섰다. 농민들도 쌀시장개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었다.

《국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걸어 《한총련》과 범민련을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1998년 《8.15통일대축전》을 가로막아나서자 그를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광범히 벌어졌다. 1999년 가을에는 《국회》에서까지 《국가보안법》개정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6.15북남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2000년 7월 232개의 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대회》를 구성하고 악법철폐운동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각계층 인민들이 집회, 공동성명과 선언서발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여나섰다.

군사파쑸독재시기의 탄압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운동과 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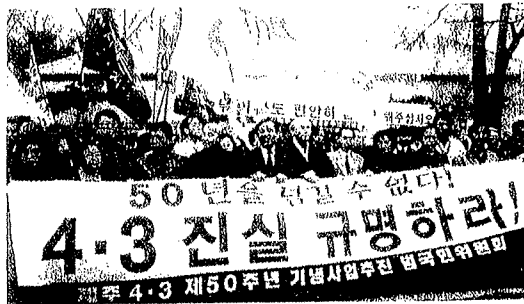
자주화를 위한 투쟁,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0년 5월 미군폭격기의 《폭탄투하사건》진상이 밝혀진 것이 계기가 되어 10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매항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내오고 항의행동을 벌리었다. 이 운동은 점차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기지전반을 문제시하는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조선전쟁시기의 《로군리학살사건》 등 민간 인학살의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한편 군사독재시기에 벌어진 고문학살사건의 진상규명운동도 활발히 벌어져 《제주4.3사건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법》(2000. 4) 등이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1999년부터 《태평양전쟁피해자유가족회》, 《조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과거피해자들의 실태조사, 진상규명,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여 벌린 일본의 과거정산을 요구하는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또한 진일행위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어 2000년대에는 《국회》에서 관련특별법들이 성립되어갔다.



4.3진상규명운동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일본의 과거정산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제주4.3사건특별법》: 2001년 1월 13일에 공포된 이 법은 민주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섰다가 미국과 남조선반동들의 범죄적 탄압만행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고 부당하게 버림받던 약 3만명의 제주도인민들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법이다.

1990년 이후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 1990년대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

1990년대초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환경은 종래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급변하게 되었다.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과 《신가이드라인》

《선언》에서는 ① 21세기에도 안보조약과 미군기지체제를 고정화한다. ②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한다. ③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어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일공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을 밝히었다.

이에 따라 주변사태에 대처한 일본의 협력외무와 대미지원외무를 규정 한 것이 《신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은 《集團的自衛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조 선위협》론을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米日安全保障共同宣言》(1996. 4)과 《신미일방위협력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 1997. 9)의 합의를 계기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에 관한 신문자료



《신가이드라인》에 관한 신문자료

《집단적자위권》: 군사동맹국인 상대국이 전쟁하는 경우 그에 함께 참가한다는 것이다.

로 《신기이드라인관련법》을 채택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 건설을 다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당국과 우익세력, 언론기관들은 《핵의혹》, 《광명성 1호》의 발사 등 여러 기회를 리용하여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소동을 대대적으로 끈질기게 벌리었다.

또한 조국과 총련,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리간시켜 총련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모략선전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각지에서 총련 각급 기관에 대한 총격사건,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일본에 조성된 극단한 민족배타적인 사회분위기속에서 재일동포들은 불안과 공포, 고립감에 휩싸이고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밝히고 사는것을 꺼려하였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을 《귀화》와 《동화》에로 떠미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한편 일본경제는 1991년에 《거품경기》(바블경기)가 깨지며 장기적인 불경기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파산과 대량적인 해고(리스토라)로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민족금융기관인 조은이 련이어 파산되었다.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심각한 경제형편은 동포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을 압박하였으며 그것은 총련의 활동과 민족 교육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극도로 힘악해진 환경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사는데서 생활의 안정과 후대들의 장래를 위한 길을 찾으려 하였으며 일본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기이드라인관련법》: 1999년 5월에 제정한 《周辺事態措置法》, 《改定自衛隊法》, 《日米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개정안을 말한다.

수, 《귀화》,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 재일동포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3세, 4세의 동포들속에서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것이 아니라 성과 이름만을 유지하고 《조선계, 〈한국〉계 일본인》으로 사는것이 마치나 국제화의 추세에 맞는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단》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1994년에 단체이름에서 《거류》를 삭제하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고쳤으며 1996년 3월에 발표한 《제6차 선언문》에서는 《일본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될것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1990년대 총련은 심각한 위기적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포사회의 존재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2)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

주체적해외교포
운동의 선구자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반사회주의, 반총련체동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투쟁을 벌리고있던 1990년대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국립평양예술단(1990. 9)과 보천보경음악단(1991. 10)의 일본공연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연



보천보경음악단의 일본공연

이에 고무된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굳게 믿고 애국애족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갔다.

총련은 《국제인권규약》 비준후 일본인민들속에서 인권옹호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한 환경에 맞게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총련은 1990년 4월에 일본당국과 남조선당국이 《91년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말고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보다 안정된 재류권을 부여할것을 요구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중적인 운동을 벌리었다.

그리하여 1991년 11월 《出入国管理特例法》에서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특별영주자격》이 부여되게 하였으며 1993년에는 指紋押捺制度를 廃止(영주권신청자에 한함)하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벌리었다.

총련은 1992년부터 해마다 유엔에 나가 일본당국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민족교육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특별영주자격》

총련에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던 재일조선인들의 재류자격을 《특별영주》라는 하나의 형태로 합치었다.

《특별영주권》에 비하여 《강제퇴거》事由가 완화된고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부터 4년으로 늘어났다.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과거청산운동의 한 고리로서 량심적인 일본인민들과 힘을 합쳐 강제리행진상조사사업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동포사회의 단합과 해외교포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91년문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당시 《법적지위협정》에서 재류자격이 정해지지 않고있던 《협정영주자》의 3세의 재류자격문제를 재협의, 결정한것을 말한다.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코리아》 유일팀을 공동응원하는 동포들



총련중앙회관을 방문한 조선통일촉진위원회 대표단

총련은 1991년 2월 《민단》중앙에 지바현에서 진행되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코리아》유일팀을 공동으로 환영, 응원할것을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총련과 《민단》의 공동응원이 실현되게 되었다.

유일팀 선수들이 일본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념원을 안고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공동응원단과 동포들은 온 경기장을 《코리아》일색으로 만들었다.

특히 여자단체팀이 련전련승하여 우승하였을 때 동포들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의 반주에 맞추어 《통일기》를 흔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한편 해외교포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속에서 1990년에 조국통일 《북미추협회》와 재중동포녀성대표단이 총련회관을 방문한것을 비롯하여 1992년에는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촉진위원회와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총련의 각급 기관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총련의 현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총련과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결의하였다.

이것은 이역땅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애족의 한길을 꾸준히



총련일군들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 걸어온 재일동포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영예감을 가슴 뿌듯이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2년 2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친히 만나시고 총련은 애국애족의 선각자이고 애국충정의 모범이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또한 총련이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었다.

4월 28일에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탄생 8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여러 대표단, 예술단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총련에서는 1992년 5월 총련 제16차 전체대회를 열어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된 영예를 계속 빛내이기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모든 애국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직과 동포들의
존엄을 지켜

재일동포들이 총련 제16차 전체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시기 미국의 《핵의혹》소동과 배를 같이하여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일본경찰당국은 1990년 5월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비롯한 8개소를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이어 1993년 3월에는 조은교또신용조합 본점과 지점들을 강제수색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강제수색하는 일본경찰들

뿐만아니라 1994년 4월 27일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총련 오사까부본부와 산하 지부들을 강제수색하였다.

6월 6일에는 총련 교도부 조직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탄압을 감행하였다.

한편 조선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는 비열한 만행을 비롯하여 상공인들과 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과 박해행위도 그칠새없이 감행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는것을 사회



총련 오사까부본부 사무소 문을 막고 강제수색을 하는 일본경찰들



칼에 찢기운 치마저고리

주의조국과 애국조직, 동포들의 존엄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자주하고 수개월만에 걸쳐 대중적항의투쟁을 벌리었다.

총련은 이와 함께 1994년 3월에 《동포결혼상담중앙센터》를 내고 동포청년들의 민족결혼을 성사시키고 장려하며 그들이 조선 사람답게 떳떳이 살아나가도록 성의껏 도와주었다.

그리고 1994년 2월에는 재일동포권리옹호위원회, 재일본조선인 인권협회를 새로 내고 《동포권리옹호3개월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었으며 《동포생활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동포들의 생활상문제를 성의껏 풀어주었다.

이 과정에 우리 학생들의 통학정기권할인을 차별을 없애고 조선
중고급학교의 일본체육대회 참가자격의 권리를 획득하고 교육조성
금을 받아내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은 일본의 신문사와 방송회사, 대학들에서 조직한 외국어웅변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연대회와 취주악연주회, 예술발표모임, 체육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자랑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잃은 커다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995년 1월 1일에 보내주신 새해축전을 받들어 애국애족운동에서 새로운 전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성 호소
東江에서《우리 동포 브라이언 페어》

1,600여명 참가, 대성황



동부경호상대세력의 활동



통학정기권할인을 차별을
반대해나선 재일동포들



위문금을 조달받는 재일동포들



피해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달려온 조정원들

진을 이복할 결의드높이 투쟁에 떨쳐 나섰다.

이러한 때인 1월 17일 阪神一淡路大震災가 일어났다.

대진재로 제일동포 121명이 희생되고 1,50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250여호의 동포들의 집과 공장, 점포들이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겨우 살아남은 동포들은 추운 겨울날 절망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8일 慰問電文을 보내주시고 25일에는 100만US\$에 달하는 위문금을 보내주시었다.

재일동포들은 100여대의 화물자동차에 구호물자를 마련하고 구원금을 모아 피해동포들에게 보냈으며 조청원들과 녀성동맹원들은 구원대를 뜻고 피해동포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특히 피해지역의 총련일군들은 자기 가족, 친척들이 희생되거나 부상당하고 자기 집이 파괴되었지만 먼저 동포구원사업과 총련사무소, 학교부터 일떠세우기 위하여 밤낮없이 몸바쳐 일함으로써 총련일군의 고상한 품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광범한 동포대중은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조국과 그를 대신하는 총련만이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고 조국과 총련을 더욱 굳게 믿고 빠르게 되었다.

3)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담보

력사적서한 1995년 5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애국 애족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은 결성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5월 24일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쌓아올린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사업방향과 총련의 기본사명, 4대애국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밝히시었다.

총련은 1995년 9월 제17차 전체대회를 열어 력사적서한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방침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새 세대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총련을 대중적인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총련의 활

대단과 5월 24일자 조선중앙통신사

김 정 일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인민군사령관 김정은 장군님으로부터)

조선중앙통신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재일 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

총련의 기본사명과 4대애국과업

· 기본사명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

· 4대애국과업

- 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지키고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
- ②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것
- ③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
- ④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는것



중등교육실시 50돐기념 재일동포대문화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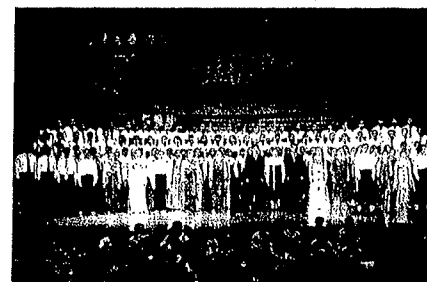
동을 대중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애국애족운동의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17전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떨쳐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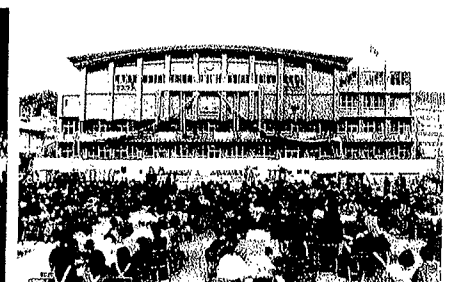
총련은 민족성을 지키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청년학교와 성인학교, 문화교실과 문화체육소매당을 더 잘 꾸리는 한편 민족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중등교육실시 5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40돐이 되는 1996년을 《교육의 해》로 정하고 동포적인 민족교육운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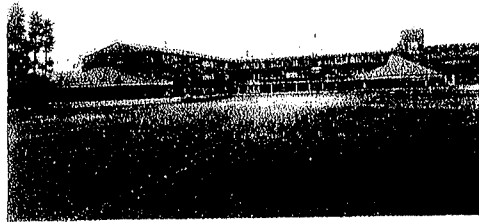
동포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한신-아와지대진재로 허물어졌던 히가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와 이마이^{이마이}조신초급학교가 원래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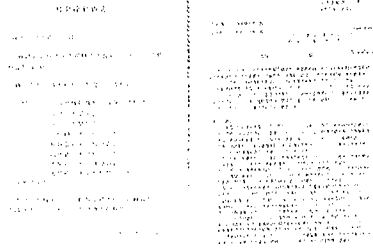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창립 40돐 기념대회



히가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 준공



도교조선중고급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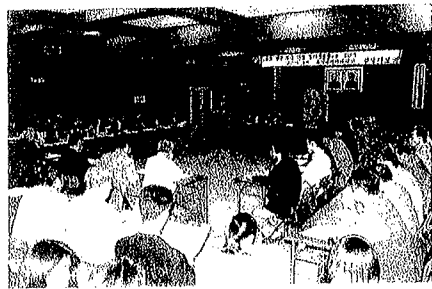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일본정부에 제출한 권고서

크고 화려하게 새로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도교조선중고급학교와 여러 학교들에서 교사를 새로 크게 일떠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또한 1998년 2월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시정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권고서와 조사보고서를 낸것을 계기로 하여 민족교육권을 옹호하기 위한 요청활동을 전 동포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내외반동들이 들고나온 반민족적, 반총련적인 《참정권》놀음을 폭로분쇄하는 전동포적투쟁을 벌리었다.

총련은 동포들의 생활상문제를 풀기 위하여 1997년 11월 상설적인 법률생활상담소를 내온것을 비롯하여 동포생활상담체계를 보다 튼튼히 세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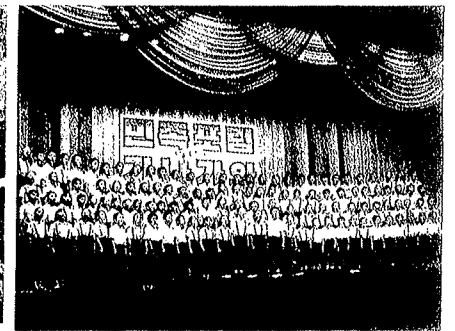
《동포방문, 봉사, 단합 3개월운동》에 걸기하는 총련 아라까와지부모임

한편 《동포방문, 봉사, 단합 3개월운동》과 《100일간운동》, 《한동네, 한마을운동》을 적극 내밀었다.

새 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을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졌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결성



《우리 민족포럼》

1995년 9월에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가 조직되어 불과 3년사이에 31개의 현단위와 57개 지역에 자기 조직을 정연하게 꾸리였으며 해마다 《우리 민족포럼》을 조직운영함으로써 1세상공인들의 애국업적을 이어 애국애족운동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다해나갔다.

조청은 《4만명동포청년담화운동》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세웠다.

류학동도 지방본부들을 새로 더 내오고 여러 일본대학들에 지부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대렬을 늘이고 특색있는 활동으로 사업의 폭을 넓혀나갔다.

한편 재일동포들은 《애국미지원운동》, 複合微生物공장기증사업 등을 활발히 벌려 조국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큰물피해를 입은 공화국인민들에 대한 지원

력사적서한관철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되었다.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담보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난관과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애국애족운동과 동포사회의 존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로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1998년 5월 총련은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사적서한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애국애족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방침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애국애족운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애국의 1세대들이 이룩하여놓은 애국애족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빛나는 계승과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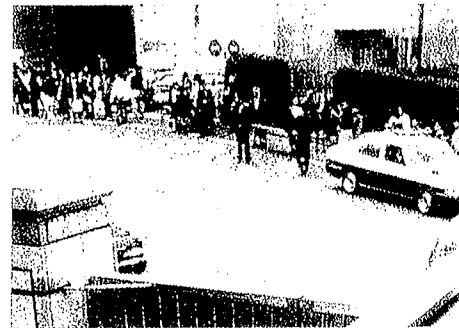
또한 지부를 중심으로 민족성이 이어지고 동포애로 단합된 동포사회를 건설하며 총련을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속에 더 깊이, 더 폭넓게 뿌리내린 대중적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담보를 튼튼히 마련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제18차 전체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던 1998년 9월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하여 일본당국과 우익세력, 언론출판기관들의 소동은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국회에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데 대한 문제를 결정하였으며 언론출판기관들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하면서 매일과 같이 《북조선위협》론



제18차 전체대회소식을 실은
신문자료



총련중앙회관 화염병방화사건

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총련지바현본부에 대한 방화와 지부일군살해사

건(1998. 10), 총련중앙회관정문에 화염병을 던지는 방화사건(1998. 11)이 일어났으며 일본각지에서 총련 각급 기관들에 대한 협박전화,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총련은 이에 대처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연일 벌리는 한편 조직과 동포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총련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1999년 3월에 《애국영예기쟁취운동》을 《애국애족분회창조운동》으로 바꾸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사업방법의 근본적전환의 과업

- 총련의 조직기구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일신한다.
- 동포들의 생활안정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해나간다.
- 민족교육사업을 크게 개선 강화해나간다.
- 문화선전사업의 개선과 동포정보교류망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벌린다.
- 일본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나간다.



지바현본부회관 방화사건



《애국애족분회》표창장을 받아인고
금지에 넘쳐있는 분회대표들

각이한 명칭으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운동이 보다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동포자신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될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9년 9월에 열린 종련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회의 확대 회의에서 종련조직을 사수하며 종련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 하여 조직을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대중단체 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애국 애족운동은 《동포밀착, 동포참가, 화목한 동포동네건설》을 지향하여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4) 새 세기 애족애국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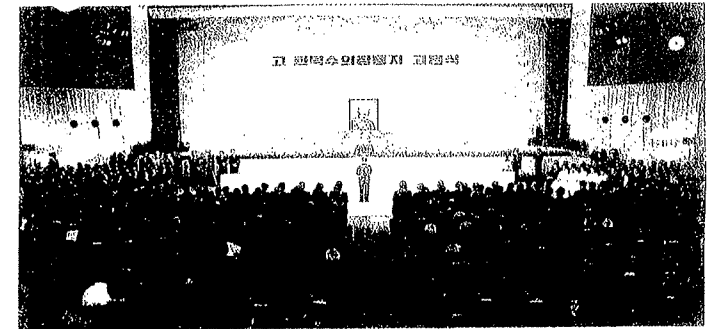
새 세기 애족애국 운동의 진로

새 세기에 들어와 종련과 재일동포들을 둘러싼 내외환경은 크게 변화되어나갔다. 공화국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으며 조중, 조로관계가 개선되고 여러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나라의 국제적위신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2000년에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는 6.15자주통일시대로 들어가고 북과 남, 해외의 벌민족통일운동은 한층 확대발전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부쉬정권(2001. 1)이 선것을 계기로 조미관계는 다시금 긴장상태로 되돌아갔으며 2002년 9월 조일평양선언발표 이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를 극대화하여 반공화국, 반종련, 반조선인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림으로써 일본사회에는 극단한 민족 배타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나갔다.

재일동포사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 3세, 4세가



고 한덕수의장의 고별식

많은 수를 차지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와 지향이 제기되었다.

새 세기를 맞이한 종련앞에는 격변하는 정세와 내외환경, 재일 동포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맞게 애족애국의 선각자, 세계 해외 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라날 빛나는 업적과 귀중한 전통을 굳건히 지키고 잘 이어나가며 애족애국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역사적사명이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제인 2001년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덕수의장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고별식에 공화국조의대표단을 보내주시는 등 각별한 배려를 돌리시었다.

종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이에 무한히 고무되어 새 세기 애족애국운동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종련에서는 2001년 5월 종련 제19차 전체대회를 열어 21세기



종련 제19차 전체대회

애국애국운동의 진로와 재일 동포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뚜렷이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는 총련의 모든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전지하며 새 세대들이 주역이 되어 폭넓게 민족적애국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밝혔다.

대회에서는 동포들이 바라는 민족성과 동포애로 단합된 화목한 동포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족문화정서가 넘친 유족한 동포사회,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값있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동포사회를 꾸려나갈것을 제기하였다.

총련 제19차 전체대회는 총련이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민족단체, 생활봉사단체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새 모습의 동포사회를 훌륭히 꾸려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21세기 애국애국운동을 개척해나가는 이정표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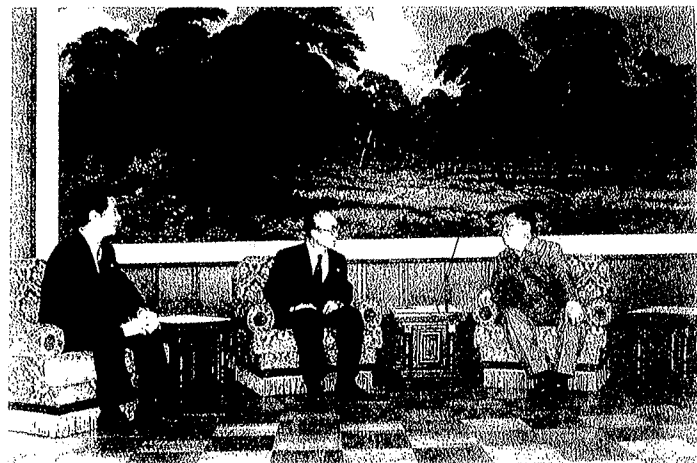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가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총련을 지난 20세기에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계승하여 21세기에도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민족성고수, 2대중심사업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계승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 기간 총련이 일본정부의 동화정책과 동포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여 민족성을 배양하고 이어가는

총련 제19차 전체대회 과업

- 민족성을 지키고 살려나가는 사업을 범동포적인 운동으로 벌려나간다.
- 새 세대 동포들을 애국운동의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동포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간다.
- 동포들의 생활상요구를 더 잘 실현하며 지부와 분회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간다.
-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다.



총련중앙의장일행을 접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사업을 새 세대를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벌리지 못함데로부터 당시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이 상실되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1995년이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동포결혼수에서도 일본인과 결혼하는 수가 급격히 높아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002년 태양절과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축하단, 대표단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정세가 어렵고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심한 이런 때일수록 총련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현 난국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새 세대를 중심으로 주체적인 애국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일본땅에서 동포사회를 지키고 조선민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2002년 5월에 열린 총련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회의에서는 총련이 참된 민족단체, 동포단체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출발점도 귀착점도 민족성고수계승에 두고 자기 사업을 전환하

고 발전시킬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성문제를 동포사회의 존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모든 세대의 동포들, 모든 분야의 인사들이 민족성고수를 위한 범동포적인 운동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또한 민족교육문화사업과 동포생활봉사활동을 2대중심기둥으로 내세우며 이에 따라 자기의 사업체제와 활동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미 꾸려진 《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봉사체제를 확립하고 그 역할을 보다 높이기 위한 대책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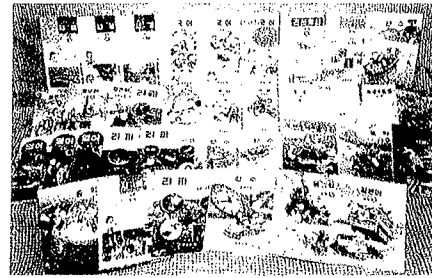
2003년 5월에 열린 총련중앙위원회 제19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에서는 20전대회를 지향하여 단결된 힘으로 조성된 난관을 이겨내면서 총련과 동포사회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개월운동》을 전개할것을 토의결정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회의들에서 토의결정한 민족성고수와 2대중심사업 등 제반 애국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우선 민족교육문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총련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회의 소식을 실은 신문자료



개편된 새 교과서들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새 교사

민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3학년도부터 초중고급학교의 새 과정안이 적용되고 모든 교과서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학부모들과 동포들은 경제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오사까조선고급학교를 개축, 보수하였으며 규슈조선중고급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의 새 교사와 체육관, 기숙사를 건설하였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문예체육소조와 《문화교실》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며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들에 수많은 동포들이 망라되었다.

동포생활봉사활동도 적극 추진되어나갔다.

본부와 지부들에 170개의 《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가 꾸려지고 《법률생활상담센터》와 13개소에 각종 고령자봉사시설을 비롯한 봉사기관들이 갖추어졌으며 100개소에서 생활봉사를 위한 출판물이 발행되었다.

또한 2001년 8월에 재일동포복지연락회가 결성되어 동포장애자



도쿄도 에도가와지부, 나가스기지부의 《동포생활상담종합센터》



《가와시끼 아리랑의 집》

고령자봉사시설의 개설

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벌였으며 그들을 위한 조국방문사업을 조직하고 동포장애자들의 음악소조공연을 곳곳에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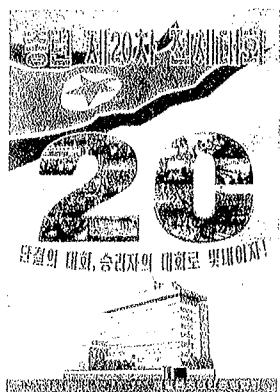
조청은 2003년에 연 8만명의 동포청년들을 초청고류망에 망라시켰으며 청상회는 학교를 돕는 운동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앞장에서 벌려나갔다.

류학동도 학술토론회와 문화체육사업을 특색있게 조직함으로써 활동범위를 넓혀나갔다.

20전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7개월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도교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학교를 돕는 운동 등 민족교육과 문화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동포생활봉사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져 생활상담진수와 해결진수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2004년 5월 28일 총련 제20차 전체대회가 열리었다.

총련 제20차 전체대회는 제일조선인운동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여 총련을 새 세대 동포들을 주력으로 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광복조직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수 있는 계기를 열어놓았다.



20전대회의 포스터

5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1)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

북남합의서와 1980년대말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대처한 외교전과 함께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북남간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었다.

이것은 《랭전》후를 내다보고 평화와 안전, 공동의 번영을 기본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치구도를 재편성하여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였다.

공화국은 주체77(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제안에서 북남관계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북남고위급회담을 발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제의를 남조선인민들의 양양되는 통일열기를 식히며 《남북체제경쟁》의 결판을 내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북남고위급회담에 응해나섰다.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예비회담

1989. 2. 8~1990. 7. 26

본회담

- 1차 1990. 9. 5~6 (서울)
- 2차 1990. 10. 17~18 (평양)
- 3차 1990. 12. 12~13 (서울)
- 4차 1991. 10. 23~24 (평양)
- 5차 1991. 12. 11~13 (서울)
- 6차 1992. 2. 19~20 (평양)
- 7차 1992. 5. 6~7 (서울)
- 8차 1992. 9. 16~17 (평양)

서로 상반되는 의도로 하여 1989년 2월부터 시작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정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5개 항목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여 난관을

타개하고 회담을 전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은 8차의 판문점에비회담을 거쳐 마침내 1990년 9월부터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제1차 북남고위급회담

공화국대표단은 불가침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경제협력과 교류만을 고집하다가 부당한 구실을 붙여 문제토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한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단시켰으며 《유엔단독가입》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중단된 북남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위한 공세를 남조선당국의 《유엔단독가입》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공화국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이 단일의식으로 유엔에 들어갈수 없게 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에 유

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사태가 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남조선에서 《절권》퇴진운동이 급속히 확대되자 남조선측은 사태를 돌려세우기 위하여 회담장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10개월간이나 중단되었던 북남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

우리 나라가 유엔에 가입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이래 1991년 9월 17일 현재 15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간의 우호협력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유엔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고,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대표적 기구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문화교육과학기구,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1991년 9월 17일 현재 15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간의 우호협력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유엔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고,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대표적 기구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문화교육과학기구,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한 소식을 전한 신문자료



북남합의서에 관한 남조선신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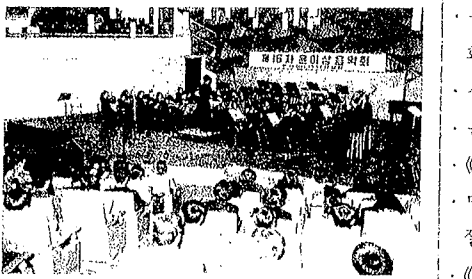
으며 1991년 12월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분열주의적책동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범민족통일운동의 양양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체육, 문화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체육, 문화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는 온 민족의 드팀없는 통일의를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수십년동안 굳어져온 불신과 대결의식을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양양되는 통일열기에 맞추어 범민련과 범청학련은 북과 남, 해외본부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범민족적인 통일행사들을



1998년 윤이상통일음악회

- 체육문화교류사업**
- 《세계평화연합》의 《리틀엔젤스》예술단 공화국 방문(1998. 5)
 - 북녘 역사유적공동답사(1998. 8)
 - 민족통일에술추진(1998. 8)
 - 북녘 역사유적에 대한 범청학련학술토론회(1998. 8)
 - 서울연주단 평양 방문(1998. 10)
 - 윤이상통일음악회(1998. 11)
 - 《통일남원북남노동자추수대회》(1999. 8)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개천절행사(1999. 10)
 - 《통일릉구경기대회》(1999. 9, 1999. 12)

힘있게 벌려나갔다.

1991년 8월 제2차 범민족대회와 8.15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그후 해마다 범민족대회와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그리고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남조선에서도 통일에국세력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의 방해책동과 《원천봉쇄》속에서도 해마다 서울에서 범민족대회가 진행되었다.

범민족통일행사들은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시위하고 민족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국회》비준과 리행을 지연시키며 미국과 공조하여 《핵사찰》소동을 벌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조국통일위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던 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이 제시되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총적목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창립
리념적기초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원칙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

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민족통일의 대헌장》, 《온 겨레를 통일애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라고 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환영하

였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도 적극 지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일으킨 《조문과동》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1997년 8월에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

철하자》를 발표하시어 조국통일3大憲章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남조선에 《국민의 정부》가 나오게 된 조건에서 1998년 4월 18일에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새롭게 내놓으시었다.

범민족통일운동의 지침을 받아안은 온 겨레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의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여러 민간단체, 회사들과의 화해, 협력 및 교류문제가 추진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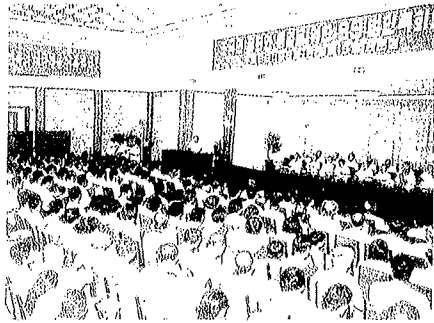
특히 1999년 8월에 열린 제10차 범민족대회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 대표들만이 아니라 범민련 남측

민족대단결5대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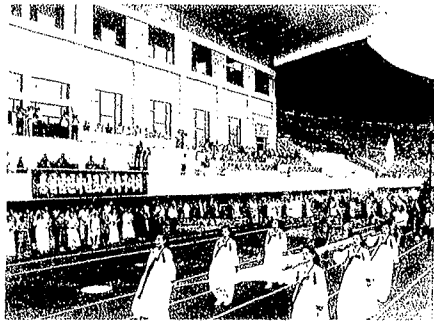
- ① 민족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 ②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 ③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④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레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차에 소를 싣고 관문점을 넘어서는 정주영일행



제10차 범민족대회



통일범원북남로동자체육대회

본부와 《전국연합》, 《한총련》, 《민주로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민족적인 대통일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축전기간에 남조선의 《민주로총》로동자통일축구선수단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3자련대, 연합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범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2) 민족의 존엄을 지켜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 마련

새로운 조미대결전 1990년대초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대결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미국의 변함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계속되었다.

미국은 199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연장으로 저들의 핵전략체제가 유지되게 되자 《개입과 확산》전략에 기초하여 1995년 2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보고서》(동아시아전략)라는것을 내놓고 미국중심의 일극세계질서확립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데로 나

갔다.

한편 미국은 공화국이 조만간에 《붕괴》될것이라는 타산밑에 《柔軟着陸政策》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3년까지 건설하기로 되어있는 경수로건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한편 미일《한》의 군사동맹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공화국은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실천하는 한편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결산할 목표밑에 1996년 2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暫定협정을 체결하며 그 리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기구를 내놓것을 제기하였다.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에서 클린톤은 공화국의 제안들 공식적으로 거절하고 그 대신 새로운 평화체계를 북남이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 남, 미, 중의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북과 남으로만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미국이 남조선《국군》의 통수권을 쥐고있는 실정에서 사실상 조미협상을 거절하는것이였으며 공화국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것이였다.

공화국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나 제네바합의를 실현하며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2월 4자회담제의를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보고서》

클린톤정부가 1995년 2월에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밝힌 문서.

기본내용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3단계철수론을 포기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계속 영향력과 경제적리해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10만명의 미군을 항시적으로 유지한다는것이다.

4자회담 진행과정

- 1997. 3~6 4자회담개최를 위한 설명회
- 1997. 8~11 3차례의 예비회담
- 1997. 12~99. 8 6차례의 본회담

《금창리핵의혹》사건

금창리에 핵시설을 건설하고있다는 1998년 8월 17일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핵문제》를 구실로 반공화국공세를 개시함으로써 조미대결을 격화시킨 사건.

1999년 5월 18~25일 미국방문단이 현지에서 굴간을 돌아보고 금창리에 핵시설이 없다는것을 확인함으로써 《금창리핵의혹》은 마무리되었다.

받아들이었으며 회담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수립에로 이어지도록 성의껏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국의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속에서도 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다지시는 한편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광명성 1호》발사와 그와 관련한 신문자료

미국은 공화국이 무너지기는커녕 그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강성대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자 1998년 8월 《금창리핵의혹》을 들고나와 공화국에 대한 압력공세를 또다시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인 1998년 8월 31일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과적으로 쏘올리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98》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조미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작전계획 5027-98》

이 《작전계획》은 5 단계로 구분되어있었다. 1 단계는 《억제》단계, 2 단계는 《무력화타격》단계, 3 단계는 《지상공격작전》단계, 4 단계는 《전쟁성과확대》단계, 5 단계는 《전쟁종결》단계로서 미군 54만 5,000명, 남조선군 63만명, 항공모함전단 5~7개, 핵무기를 적제한 침단비행기들로 선제타격을 노린 작전계획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 성명중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행성우에 없다는것을 꼭바로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국의 오만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11월 24일께 외무성대변인의 담화, 12월 2 일에는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는 공화국의 자세는 미국지배층을 커다란 불안과 혼란속에 빠뜨렸다.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클린톤은 1998년 11월에 이전 국방장관이였던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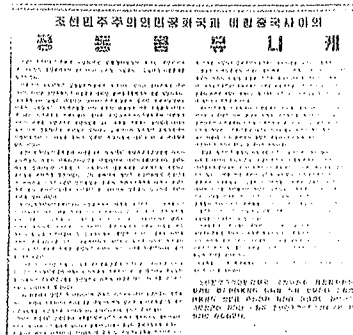
페리는 드차레에 걸쳐 남조선, 중국, 일본을 오가며 《대북정책》을 논의한 다음 1999년 5월 공화국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은 9월 《페리보고서》에 기초하여 대조선정책을 《유연착륙정책》으로부터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었으며 공화국과의 정치회담에 나섰다.

공화국과 미국의 장관급 정치회담을 거쳐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공유니케가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사 미국방문



조미공동컴유니케의 기본내용

-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종식
-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을 선언
- 공화국은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한 모든 장거리미사일발사 중지
-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
- 인도주의적문제에서 호상협조,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 고무
- 미국대통령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국무장관의 공화국 방문

조미공동컴유니케전문을 실은 신문자료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의 평양방문 이후 클린턴의 방문은 11월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와 미국정권의 교체 등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첨예한 조미대결전에서 조미공동컴유니케를 이끌어냄으로써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6. 15북남공동선언

1990년대말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급격히 변화되어갔다.

1999년 9월 《페리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미국정부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과 남조선당국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고 북남관계, 조일관계를 조심스럽게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3자련대가 실현됨으로써 통일지향세력과 반통일분열세력과의 역량관계는 통일에 유리하게 전환되었으며 남조선의 보수세력과 집권상층들까지도 북남관계개선을 더는 외면할수 없게 되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평화적환경의 조성은 이 시기 《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한 남조선경제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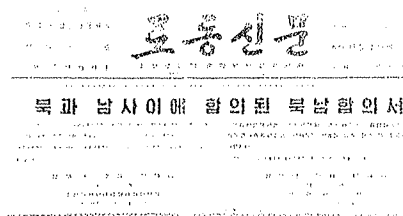
김대중대통령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러한 환경속에서 김대중은 2000년 3월 《베를린선언》을 통하여 평양방문의사를 공식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변화되고있는 정세를 통찰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하여 그의 평양방문요청을 수락하는 결단을 내리시였다.

이에 따라 북남간의 접촉이 진행되고 4월 8일 평양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확인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민족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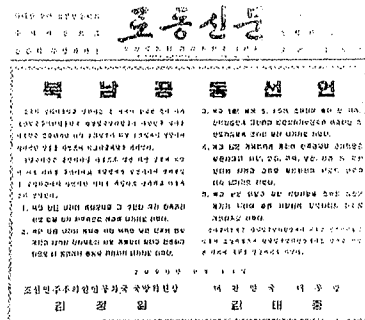
북남합의서에 관한 신문자료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행장까지 나오시여 김대중을 비롯한 남측일행을 따뜻이 맞이하고 환대하시였으며 연도에는 수십만군

북남공동선언의 기본내용

-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북과 남의 통일제안의 공통성을 서로 인정한다.
-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교환, 비전향장기수문제의 해결 등 인도적문제를 풀어나간다.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6. 15북남공동선언발표와
관련한 신문지료

중이 나와 남측대표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하였다.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최고위급회담에서 김대중은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과 남의 수뇌들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상봉한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선언문에 명기될 조항들을 하나하나 천명하시고 합의를 이루어내시였다.

그리하여 6월 15일 온 민족의 환호속에서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였다.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채택소식은 삽시에 전세계에 퍼져갔고 세계언론들은 《새 천년기에 특기할 사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해성같이 등장하였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사의 흐름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민족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고 민족분렬시대를 끝장내며 화해와 협력, 교류의 민족공조시대로 전환시킨 21세기 조국통일의 라정표였다.

온 민족은 통일에 대한 확신과 신심, 열망에 넘쳐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

1990년대 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이 펼친 《對朝鮮包圍環》을 짓부시는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다그치는데서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구축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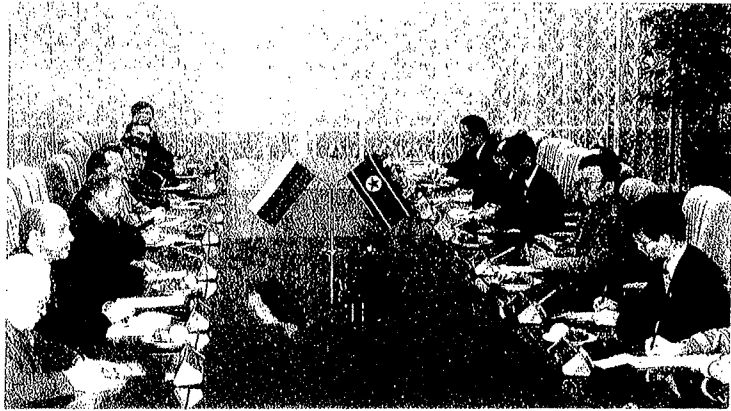
특히 로씨야에서 뿌찐이 집권하여 《강력한 로씨야》의 재건을 내세워 미국의 새 세계질서확립을 반대해나서고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쥘려는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기 시작한 조건에서 공화국앞에는 두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나서게 되였다.

공화국은 중국,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의 개선, 유럽동맹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1999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8월 유럽동맹과의 외무상회담을 제의하는 등 외교활동을 적극화하였다.

2000년 3월 공화국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첫 방문으로 조중

조 중 관 계	1999. 6	공화국국가대표단 중국 방문
	2000. 3	경애하는 장군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2000. 5	경애하는 장군님 중국 비공식 방문
	2000. 10	강택민총서기 베이징주재 공화국대사관 방문
	2001. 1	경애하는 장군님 중국 공식 방문
조 로 관 계	2001. 9	강택민총서기 공화국 공식 방문
	2000. 2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2000. 7	뿌찐대통령 공화국 방문, 조로공동선언 발표
	2001. 7~8	경애하는 장군님 로씨야 공식 방문, 조로모스크바선언 발표
	2002. 8	경애하는 장군님 로씨야리엔방 원동지구 방문

조중, 조로관계 중요로정



로씨야 뽀썸대통령과 회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친선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5월 29일부터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신데 이어 2001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하시었다.

이와 함께 조로친선의 새로운 뉴대를 위하여 2000년 7월 19일과 20일 량일간에 걸쳐 공화국을 방문한 뽀썸대통령과 회담을 가지시었다.

회담에서는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 로씨야에 대한 공식방문과 원동지

조로공동선언의 기본내용

- 쌍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쌍방은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 쌍방은 매개 국가가 자기가 나갈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인하며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한다.
-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하며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를 반대한다.
- 쌍방은 여러 분야에서 련계를 발전시키고 서로 협력한다.

구방문을 통하여 로씨야와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었다.

중국과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가 급속히 발전됨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여갔다.

이 시기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외교관계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유럽동맹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이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2002년 9월 17일에는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반세기이상 공화국을 적대시하거나 멀리하던 나라들이 공화국 정부를 정식 인정하고 관계개선의 길로 나온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대조선포위환》이 무너지고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정부대표단과 유럽동맹 대표단과의 회담

국교를 맺은 날자	나라명	국교를 맺은 날자	나라명
1998. 8. 10	남아프리카공화국	2001. 2. 7	에스빠냐왕국
1999. 1. 7	브루나이	2001. 3. 1	도이칠란드련방공화국
1999. 5. 8	오스트랄리아련방(재계)	2001. 3. 6	룩셈부르크대공국
2000. 1. 4	이탈리아공화국	2001. 3. 8	그리스공화국
2000. 7. 12	필리핀공화국	2001. 3. 9	브라질련방공화국
2000. 10. 19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영국)	2001. 3. 26	뉴질랜드
2001. 1. 15	네덜란드왕국	2001. 4. 4	쿠웨이트
2001. 1. 15	튀르키예공화국	2001. 5. 14	유럽동맹
2001. 1. 23	멜지끄왕국	2001. 5. 23	마레인
2001. 2. 6	캐나다	2002. 11. 5	동부띠모르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1998-2002)

3)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사업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새시대, 6.15 자주통일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일찍이 없었던 사변들이 편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2000년 6월 29일 역사적인 평양 상봉후 처음으로 남조선의 정주영일행을 접견하시고 금강산관광 사업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었다.

2000년 7월에 열린 북남사이의 상급회담에서는 앞으로 열리게 되는 모든 회담들을 신의와 협력의 정신에서 실시하는 회담으로 만들데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북남공동선언을 더 잘 리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2000년 8월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8월 12일 대표단을 만나시고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8월 북과 남사이에 큰 규모의 가족 및 친척방문단이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고 9월 2일에는 63명



금강산관광을 떠나는 남조선인민들



가족 및 친척들의 상봉(고려호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을 만니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의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에로의 집단송환이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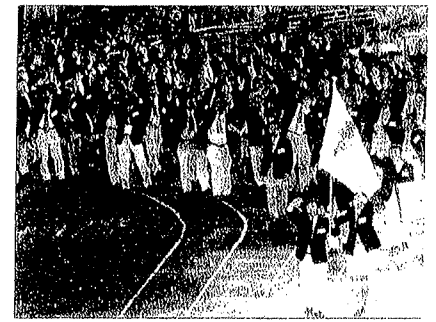
또한 북남사이의 상급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대표단교환 등 여러 갈래의 회담과 접촉을 통하여 화해와 단합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협력, 교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폭넓게 벌어졌다.

여러 갈래의 회담과 접촉

· 적십자회담(3차)	2000. 6 ~ 2001. 1
· 북남상급회담(8차)	2000. 7 ~ 2002. 10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2차)	2000. 8 ~ 11
· 군사실무회담(7차)	2000. 11 ~ 2002. 9
· 개성공업지구건설을 위한 북남실무접촉	2002. 12
· 철도,도로연결분과 제1차회담	2002. 12

2000년 8월에 이어 11월에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이



시드니올림픽공동입장

진행되었으며 북남선수단의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 등 체육문화분야에서도 협력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경제분야에서도 북남간의 동서해 지구의 철길과 도로연결사업, 개성 공업지구(공업단지)건설사업이 적극 진척되어나갔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에서는 오래동안 강요되어온 《반공》, 《반북》정책의 장벽이 무너져가고 반미자주통일운동이 급속히 확대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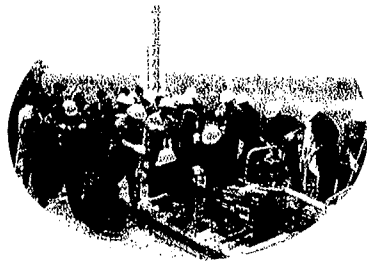
2000년부터 해마다 8.15통일대축전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 3월에는 《6.15북남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결성되었다.

반미자주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의 방해속에서도 광범히 벌어졌으며 그것은 점차 미국과 조선민족의 대결구도라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 2001년 1월에 집권한 부쉬정권은 클린턴정권의 내조선유화정책을 전면부정하고 공화국을 《악의 축》, 《테러지원국》으로 몰아 북남대화와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였다.

— 반통일보수세력은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대북피주기》, 《엄격한 상호주의》, 《금강산관광수입의 군사비전용》을 떠들며 북과 남의 경제협력사업을 이모저모 방해하였다.

그러나 6.15북남공동선언의 실행을 요구하는 7천만 조선민족의 뜨거운 념원을



철도연결사업



개성공업지구

가로막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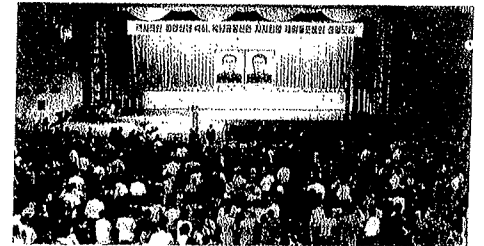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다그쳐 기여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감한 진군을 계속하였다.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운동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 발표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래

동안 지속된 동포사회의 《38도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듯 하였다.

2000년 6월 19일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재일조선청년축제가 열리었으며 21일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재일동포들의 중앙모임이 도교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지지환영 재일동포들의 중앙모임

각 지방조직과 산하단체들도 지역별, 계층별로 통일토론회를 비롯한 학술행사, 예술공연, 축하모임 등 군중문화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재일동포들의 통일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속에서 총련과 《민단》을 비롯한 여러 동포단체들과의 민족단합의 기운도 여느때없이 높아졌다.

총련은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동포들의 축하모임



역사적인 평양상봉식에서 접하여 기쁨에 넘쳐있는 동포기정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단》동포들과 함께 꽃놀이, 야유회, 문화체육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모임과 행사들을 지역단위로 진행하였다.

조청, 청상회, 류학동은 《한청》, 《한학동》과의 교류를 주동적으로 활발히 전개해나감으로써 광범한 세 세대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공동모임과 행사들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재일동포들의 뉴대와 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총련은 모든 재일동포들이 굳게 뭉쳐 6.15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합세하도록 하는 사업도 광범히 전개하였다.

총련은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들을 계기로 평양과 금강산에서 진행된 민족통일토론회와 통일대축전 등 여러 행사들에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 성과적진행에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제 1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총련동포들의 고향방문문제가 합의된 이후 총련은 나라가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1세대동포들의 총련동포남조선고향방문단(2000. 9)을 남조선에 보내게 되었다.



북남공동선언지
재일조선청년축전

반세기가 넘도록 못 찾아갔던 고향땅을 백발의 1세대동포들이 찾는 모습은 모든 재일동포들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6.15자주통일시대의 도리를 생활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고향방문단에 이어 2002년의 월드컵참관단, 통일축구대회참관단, 아시아경기대회참관단을 비롯한 여러 방문단들이 남조선을 방문하였으며 방문동포수는 2002년에만 하여도 263명에 달하였다.

특히 9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의 남조선공연과 12월에 있는 금강산가극단의 첫 남조선공연은 이역에서 민족의 뉘를 곳곳이 지켜온 총련의 모습과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력력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의
남조선공연



금강산가극단의 첫 남조선공연



제 1차 총련동포남조선고향방문단의 남조선방문